



# 제2회 여성누리제

## 첫째마당 —) 여성과 인터넷

여성들이 하는 인터넷  
더 이상 소/외/는 없다!!!

일시: 9월 21 ~ 9월 23 일 ( 오후 3시 ~ 5시 )

장소: 자연과학관 8208

강사: 정보연대 SING ( 주현숙 강사 )

주관 :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제 14대 총여학생회

## 첫째마당

### 인터넷과 여성 - 뒤집지!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 사회이며 좀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는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이용자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다. 그 원인은 여성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그렇게 훈육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낯설은 것은 당연하고 남성들이 정보화 사회의 화려한 미래를 그리는 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컴맹과 넷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남성들은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성들은 거기에 종속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컴과 넷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자.

▶강사: 정보연대 sing 주현숙

▶시간: 9/21 월-9/23 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소: 자연과학관 8208

## 둘째마당

### 개막제

소외와 억압을 말설하고  
여성의 시각과 눈으로 그려진 문화관을 만든다.

▶여성주의 총론 기관공연-놀이!

도너츠를 만드는 마녀, 숨겨진 마녀, 마녀 축제극,

남성중심 문화에 대한 일종의 장난치기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억눌린 욕망을 그린 작품

### #개막신언

### #여성발언대-오자!

여성이기 때문에 소외, 억압받은 것들을 주어진 시간내에 소리쳐본다.

### #어떤 여자 마임공연-오자!

저하철내의 성추행을 마임으로 표현

### #시상식

## 셋째마당

### 영화속의 여성-오자!

한국여회에서 비취지는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 보며 그것이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보자.

▶강사: 동국대 연영과 교수, 영화평론가 유지나

▶일시: 9/22 화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장소: 자연과학관 8104

## 넷째마당

### 여교수님과의 간담회-뒤집지!

남학생과는 달리 교수님을 찾아 뵈고 자신의 미래를 상담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여학생들. 강의실에서조차 소외

받는 여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교수님을 만나보자. 이 자리는 여교수님과 여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로 비추어지는 여교수님들.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분들이 여러분께 하는 한마디, 칭찬과 저지는 여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었기에 힘을 얻던 남성 위주의 대학사회에서 이 자리를 통해 소외감을 품을 털어버리고 같은 여자들이기에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이 자리를 빌어 마음껏 얘기합시다.

▶참가하시는 교수님: 환경공학부 김희경 교수 외

▶일시: 9/23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장소: 학생회관 2층 쉼터

## 다섯째 마당

### 폐막제

보컬이 아니라 코러스, 밴드 뒤에 숨겨진 여성이벤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당당히 그리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그 무언가를 무언 할 수 있다.

▶여성노래 한마당-놀이! #폐막 신언

▶RAH의 축하공연

▶시상식

▶페미니스트 락밴드 마고공연-뒤집지!

▶일시 : 9/23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학생회관 앞

## Our cyberspace, Our Selves

###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공간인가?

'통신을 하지 않는다면 컴퓨터기능의 80%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이 말을 몇 년전 한 선배에게서 들었다. 도대체 PC통신이 무엇이기에 컴퓨터의 기능을 들먹이는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해 보았다. 최근에 주변에서 나돌아다니는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선배가 하려고 했던 말이 PC통신 혹은 인터넷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매개로 해서 생기는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PC통신과 인터넷, 네트워크와 네트워킹을 잇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공간이란 어떤 것일까? 그 성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이러한 논의들 속에는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제반문제들이 이새로운 공간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다. 특히 남녀 불평등, 여성의 상품화,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한 연구를 해온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낙관적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CMC의 연구는 우선적으로 지난 몇 해 동안 어학 포럼(LINGUIST, 어학관련 주제토론실)과 MBU(Megabyte University, 컴퓨터와 글쓰기에 관한 비공식적 조직)라는 학술 포럼에서의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에 관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Herring(1992), Herring(1993), Herring, Johnson, and DiBenedetto(1992) 참조) 어학 포럼과 MBU에 대한 참여 연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쓰였다. 첫 번째 것은 '민속학적 관찰로, 연구자는 직접 등록하여 일년 정도를 활동하면서 이용자, 최근 논의되는 이슈, 그 밖의 관련 배경 등 정보를 알아 나갔다. (CMC는 특히 이런 형태의 데이터 수집에 아주 좋은데, 관찰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찰자의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다.) 둘째, 각각의 포럼에서 두 가지 주제 토론에 올라온 텍스트들에 대해 문법이나 문체의 패턴에 관한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음에는 그 사용 패턴을 이용자의 성별과 연관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용자의 이름이 서명이나 페스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이름과 성별을 그대로 매치 시키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명단을 조회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각각의 포럼에 두 가지 전자적 분석을 수행했는데, 첫째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가입해 있는 포럼에서의 특정한 토론에 대한 반응을 요청했고, 그들의 성별, 직업, 컴퓨터 친화/능력 정도와 관련한 배경 정보를 요구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양적, 질적으로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남성과 여성 이용자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별상의 차이점은 다양한데, 우선은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기도한 한 포럼에서도 여성의 참여도는 매우 적었다. 누가 방해하지도 않았지만 공개된 공간(현실과는 다르지만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신을 들어내고 그 공간에서 다른이들로부터 나름의 신임을 얻어야하는)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검열하는 다시 말해 내적 검열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여성은 포럼에서 ROM(게시판의 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주제에 선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선호도 순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다.

남성 : 주제 > 정보 > 질의 > 개인

여성 : 개인 > 질의 > 주제 > 정보

이는 여성들이 소통에 있어서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상의를 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주제로 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다.

| 여성의 언어 | 약한 주장 | 변명    | 명백한 정당화 | 질문     | 개인 근거  | 타인에 대한 지원           |
|--------|-------|-------|---------|--------|--------|---------------------|
| 남성의 언어 | 강한 주장 | 자기 홍보 | 전제      | 수사적 질문 | 권위적 근거 | 타인에 대한 도전, 유머, 빈정거림 |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적 언어는 여성적 언어보다 공격적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공간에서도 성별과 관계된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는 현실계에서 보여지는 불평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그 탄생의 불안정성

가상공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일까? 이 물음은 쉬이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탄생은 어떤 맥락에서 이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인가? 올해로 컴퓨터는 52살이 되었다. 지난 46년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ENIAC)'이 미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모를리와 그의 제자 에커트에 의해 제작 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이 세계적으로 국방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대포와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컴퓨터를 만든 것. 전쟁이 컴퓨터를 낳은 셈이다. 이에 앞서 1940년 독일 과학자들이 히틀러에게 컴퓨터 설계를 제안했다. 히틀러는 전쟁에 곧 이길 것이라고 자만한 나머지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에니악이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제 1세대 컴퓨터로 기록되면서 새로운 컴퓨터들이 앞다퉈 개발 됐다. 컴퓨터는 점차 널리 쓰이게 됐고 곧 통신 분야로 불붙어 데이터통신망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게 됐다. 컴퓨터에 이어 인터넷도 그 뿌리를 전쟁에 두고 있다. 지난 69년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냉전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 계획국의 지원을 받아 대학과 연구소에서 인터넷의 전신 '알파넷(ARPAnet)'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통신망은 먼 곳에 떨어진 컴퓨터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됐다. 당시 미국은 국방용 컴퓨터를 한 군데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적의 핵폭탄 공격을 받으면 국방 기능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지 모른다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런 최악의 위험을 막으려면 여러 곳의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나눠 보관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알파넷은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학재단(NSF)이 주축이 돼 학술망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가장 거대한

사이버스페이스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家父長制)는 그 옛날 전쟁과 함께 공생해왔다. 전쟁에서 아슬아슬하던 여성은 남성의 위지덕덕이나 하는 존재로 여겨져왔다. 가부장제가 전쟁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전쟁은 컴퓨터를 낳았다. 자연스럽게 가부장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전이돼 남성 위주의 사회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 초기는 주로 남성들이 활동해왔다. 따라서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통신망은 남자 위주의 세상으로 다져졌고 정보 인프라조차 남자가 좋아하는 '성적 환상'으로 꾸며져 갔다.

## 머릿수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

여성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남성의 문화와 언어로 선점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을 함께 변화시켜나감아 한다. 이는 가상공간에서 여성의 문화와 언어를 갖게 되는 길임과 동시에 현실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인터넷 가이드는 인터넷 초보자들에게 인터넷  
활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 ■홈페이지 만들기

1. WWW의 개념 및 특징
2. 홈페이지의 구축법과 문서 구조
3. HTML의 문법 구조
4. 연결(LINK)하기
5. BODY(몸체)
6. TABLE 만들기
7. FRAME 만들기

## ■네스케이프 활용

1. 네스케이프의 화면 구조
2. 메뉴 살펴보기
3. 마우스 100% 활용법
4. 일반 환경 설정은 이렇게
5. 메일/뉴스 환경 설정
6. 네트워크 환경설정
7. 보안 환경설정
8. 북마크 기능
9. 실전! 전자우편 보내기

## ■검색 엔진

1. 검색엔진 이전의 도구들과 등장 배경
2.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검색 엔진 종류
3. 검색엔진을 이용한 정보검색 요령 6가지
4. 각종 검색엔진 목록 및 URL
5. 야후 (YAHOO)
6. 웹 크롤러 (Web Crawler)
7. 라이코스 (Lycos)
8. 알타비스타
9. 메타엔진

## 1. WWW의 개념 및 특징

### 1-1. WWW 란

WWW의 정확한 표현은 world wide web이고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범세계적이고 정보의 유동성이 빠르며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그래픽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1-2. WWW 특징

#### 1-2-1. 하이퍼 텍스트의 정보 시스템이다.

어떠한 문서를 읽을 때 열거적인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하이퍼 텍스트의 기본 개념이다. 브라우저상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단지 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담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연결 고리처럼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 1-2-2. 그래픽으로 구현 되어 정보 검색이 용이하다 (user interface)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웹은 화면에 텍스트와 그래픽을 동시에 표현 한다. 웹 등장 전에 internet은 단지 텍스트 위주의 국한된 정보를 보여줌과 직접 명령을 내려야 하는 접속 구조 때문에 정보의 효율적 사용에 일반 사용자로서는 용이하지 못했다. 그러나 웹은 뛰어난 user interface 덕분에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을 브라우저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다.

#### 1-2-3. 정보가 분산되어 분포한다.

하나의 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분산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 하면 된다.

#### 1-2-4. 다양한 internet 정보 형태를 지닌다.

기존의 internet상에서 FTP, Gopher, Usenet news, WAIS, telnet, e-mail 과 같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 했지만 웹은 하이퍼 텍스트를 읽어 들이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정보로 볼 수 있다.

예: gopher -> gopher://  
ftp -> ftp://  
telnet -> telnet://

#### 1-2-5.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자신이 연결할 곳을 설정하고 설정한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즉, 검색자가 여러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문자를 입력하거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Uniform Resource Locates(URL) :

URL은 web, FTP, Gopher 상의 문서 data를 가르키는 것이다. 만약 web의 특정한 곳을 가르키려 URL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netscape에서 정보를 찾으려면 open명령을 사용에 적는 것을 URL이라한다. URL은 프로토콜(HTTP,FTP,Gopher), 호스트 이름(www.yahoo.com/ftp16.netscape.com), 찾는 디렉토리를 가르쳐 준다. 또한 mailto(메일 기능)이나 telnet등도 있다.

### 1-3. Homepage란 무엇인가?

웹 브라우저를 기동시키면 보게 되는 초기 문서를 말한다. 주로 netscape을 쓸 때 netscape사의 홈페이지가 나타나 듯이 말이다. 필자는 주로 yahoo를 초기 홈페이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만든 홈페이지를 설정해도 상관은 없다. 단지 브라우저에 따라 기본 홈페이지 비꾸는 방법이 다르고 가급적이면 다른 수 많은 서버의 접속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홈페이지로 정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주로 검색 사이트처럼....

### 1-4. HTML이란?

Hyper Text Makeup Language가 원어이고 하이퍼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언어 정도로 쉽게 이해하면 되겠다. 마치 윈도우즈에서 도움말 형식의 문서 즉, 색깔의 구분이나 마우스 화살표가 특정 부분에 가서는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클릭을 했을 때 문서들이 동적으로(link) 연결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실제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하이퍼 미디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외에도 그래픽이나 동영상, 사운드까지 링크가 되니까...

## 2. 홈페이지 구축법과 문서 구조

### 2-1. 홈페이지 구축법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도 단순,명쾌해야 하며, 요즘은 멀티미디어가 필수적이다. 웹의 열기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웹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작성 도구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정작 홈페이지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구축법을 기준으로 하면 좋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 홈페이지 구축 10단계 >

##### 1) 사전 계획을 세운다.

홈페이지를 설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마케팅을 위한 시장 조사처럼 진지하고 세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즉 제시하거나 강조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해 분류하고 이들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며, 기초 페이지를 설계한 후 일부 사용자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간단하게 만든다.

책의 표지가 책의 내용에 드러내듯 홈페이지도 웹 사이트의 내용을 대변한다. 설계는 과감해야 하면서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설명과 복잡한 배치로 인해 홈페이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제공하는가, 내용물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몇 개의 필수적인 요점만을 명확히 한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 가장 중요하다. 웹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군더더기가 없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모뎀을 통해 웹에 접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수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홈페이지에 추가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서는 안된다. 그래픽은 가능한 작게 해 수신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미지가 커지고 색상수가 많아 질수록 전송시간은 길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이미지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이미지 수신에 따른 영향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64컬러이하에 크기는 20K 정도가 좋다. 많은 그림으로 페이지를 꾸미려는 유혹은 피해야 한다. 더 적고 작은 그래픽을 사용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신속하게 수신돼야 한다. 일부 사용자는 10-15초가 넘어서면 인내심을 잃는다. 따라서 페이지를 만든 후 가능하면 최악의 조건에서 제작한 페이지의 수신 속도를 테스트해 본다. 일례로 9.6Kbps나 14.4Kbps 모뎀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에 웹 서버 접속도 몰릴 경우를 상정하는 식이다. 그리고 웹 사용자가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가장 낮은 단계로 가정한다. 즉 17인치의 고해상도 모니터가 아니라 14인치에 표준 해상도 모니터를 가정해 홈페이지를 작성한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전용 브라우저 등 좀더 간단한 브라우저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진보 된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더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 4) 영상을 제공한다.

웹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채널 파도타기를 즐길 뿐이다. 따라서 웹사용자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웹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기능이며, 웹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눈길을 끄는 그래픽, 독창적인 배치도, 보기 좋은 서체 등은 웹페이지에 독특성과 차별성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그래픽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실용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며, 화면을 채우기 위한 공허한 것들여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그래픽은 수려하면서 의미를 제공하는 그래픽이다. 그림이 내용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용자들이 수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래픽 분은 수신하지 않도록 자신이 사용중인 브라우저를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용자가 보는 것은 텍스트일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포함하고있는 연결 문구는 그림뿐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이중화돼야 한다. 이 이중화 구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모드에서 페이지를 테스트해 본다.

#### 5) 탐색하기 쉽게 만든다.

홈페이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탐색 기능으로 웹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이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속도와 명쾌함을 주기 위해 홈페이지에 몇가지 기본적인 중요한 항목(회사, 상품, 서비스, 지원 등)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장 적절한 연결 항목 수는 6-8개다. 그러나 페이지 계층구조가 너무 복잡해 정보가 묻혀서는 안된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5번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야 할 경우 웹 사용자는 짜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홈페이지 작성자는 정보의 넓이와 깊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웹 사이트에 정보가 많을 경우 이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페이지나 연결 항목을 늘리기 위해 재분류해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작성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각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일군의 페이지들을 갖게 된다. 이때 키워드나 문구를 이용한 탐색 엔진이 제공될 경우 이런 페이지 탐색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 6)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은 홈페이지라면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웹 사이트를 분명하게 그리고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표제어. 표제어로는 이름이나 문구, 로고, 그래픽 등 다양한 종류가 될 수 있다.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웹 서버 관리자의 주소 등 전자우편 주소. 웹 서버 내용물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 내용물의 사용에 따른 자세한 용어와 조건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다른 페이지에 연결시켜 주는 간단한 지적재산권 설명. 이것은 어중이 떠중이가 물려드는 것을 방지한다. 고객 지원부서나 판매부서 등의 주소나 전화번호같은 접속 수단 정보.

#### 7) 기존 자료를 재활용한다.

많은 경우, 홈페이지를 위해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 즉 제품 설명서, 대중 관련 문서, 기술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소스로부터 텍스트, 그래픽, 자원 등을 가져와 재활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자료는 다른 작업없이 그대로 웹 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다.

#### 8) 항상 최신 내용으로 갱신한다.

웹은 매일 새로운 유혹거리가 등장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장소다. 웹이 구축된 시점의 모습 그대로일 경우 웹 사용자는 다시는 찾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제공해 이들을 다시 유인해야 한다. 홈페이지는 발표문이나 신선한 뉴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픽과 디자인은 정기적으로 변경돼야 한다. 흥미있는 항목의 내용은 계속적이고 자동적으로 갱신돼야 한다. 일례로 웹 사이트 방문객 숫자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웹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설명서, 기술서를 책자나 CD로 배포하는 경우 즉시 웹 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웹은 항상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파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 사용자를 강요하지 않는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사용자를 다룰 수 있는 완전한 처리 구조가 제자리를 잡기전까지 양식 기반 주문서 등 사용자의 응답을 강요 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전화번호 등 접속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10) 웹 사용자들을 초대한다.

홈페이지를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웹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며, 이들 사용자가 물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따라서 웹페이지를 쉽게 찾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웹 사이트에 작성한 홈페이지의 주소를 알린다. 그리고 웹 번호부, 색인, 탐색 엔진, 새로운 웹 사이트 소식란 등에도 주소를 알린다. 또한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종이 광고물, PR 문서, 영업부서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더나가 웹 서버에 구축된 모든 웹페이지에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주는 버튼을 집어넣는다. 웹은 살아있는 계속 진화중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상의 10개 원칙중 일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일례로 가정까지 고속인터넷선이 제공될 경우 고해상도 그래픽 등 가용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져 홈페이지에 더 많은 그래픽 요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웹은 더욱 강력해 지고 대화 기능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구가 나와 웹 페이지 작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웹과 웹 사용자는 더욱 재미있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홍콩컴퓨터월드(1월18일자)-

### 2-2. 문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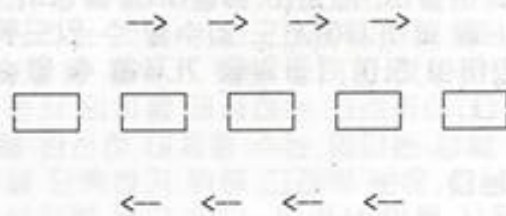
웹의 구현은 하나 이상의 웹문서로 이루어진다. 웹 문서는 텍스트 그래픽 등의 다양한 정보 등을 담고 있고 이 문서들로 서로 연결 되어 있다. 웹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히 우리가 웹 문서를 구현하는 정보를 구조화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원래의 개발 당시의 의도나 목적을 최적화 시킬수 있다.

#### 2-2-1. 선형 구조 (선택적 선형 구조)

무조건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이용할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문서를 읽다가 선택한 문서로 이동을 하게된 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처음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한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나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이들이 검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 경우, 원하고자 하는 문서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를 뿌려주고, tag만을 이용해서, 문서의 상하단을 이동할 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계화 해서 분리 및 여과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재미 삼아 작성한 내용이기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홈페이지도 이런 하나의 정보 전달 방법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도식화한 선형 구조>



#### 2-2-2. 계층적 구조

A라는 문서를 읽다가 B라는 문서를 읽은 후 위로 바로 전 페이지로 옮겨 갔을 경우, A라는 문서가 아니라, C라는 문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계층적인 구조이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 대한 웹 페이지를 주제로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동물을 선택 했다면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 올 수도 있고 다른 특정한 동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홈 페이지에서 동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는데 다시 사자를 선택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각 단계에서는 전후 또는 색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만 인터페이스 때문에 정보 검색중 현재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웹을 계층적 구조로 만든다면 자료간의 중복을 피하고 특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단계나 연결 설정은 자칫 문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메뉴 레벨이 3~4개가 적당하겠다.

#### 2-2-3. 선택가능한 선형적 구조

선형적인 구조의 웹문서를 읽는 사람에게 몇가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직된 선형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즉, 홈페이지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선형적 구조를 만들므로 해서 main 문서들에 의한 연결 문서가 아닌 선택적인 문서들을 다시 main문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문서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되돌아가는 기능이나 이미 문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2-2-4. 선형적 구조와 계층적 구조의 결합

웹 문서를 조직화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계층적 구조와 선형적 구조의 결합이다.

### 3. HTML의 문법 구조

HTML 문서는 보통 타이틀(title)부분, 헤더(header)부분, 몸체(body)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스키라고 알려진 일반 텍스트 양식의 문서이며 UNIX상에서는 EMACS나 VI이 WINDOWS상에서는 특별한 HOTDOG같은 편집기를 이용하지 않고 메모장을 이용해서도 간단히 문서를 만들 수가 있다. HTML로 작성된 문서는 아스키 형태로 작성되고 '문서 내용 자체의 텍스트'와 '문서의 구조, 형식, 다른 호스트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나타내는 HTML tag'로 구성된다. HTML문서는 항상 '<'로 시작해서 '>'로 끝나도록 해야 하며 각각의 tag는 쌍의로 존재하며 대응하는 tag의 끝은 '/'로 구분된다.

예 : <tag 이름> tag에 의해 영향받는 문서 </tag 이름>

하지만 일부 몇몇 tag는 시작과 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을 가진 것도 있다. 모든 HTML tag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섞어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다. 즉 <HTML>이라는 tag와 <html>, <HtMl>은 같은 tag라는 뜻이다. UNIX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만.....

#### \*알아두기 :

- HTML : 문서를 구조화하는데 사용되는 처음 tag는 <HTML>이다.

```
<HTML>
.....문서 내용 ...
</HTML>
```

- HEAD : <HEAD> tag는 시작을 알리는 tag이다.

```
<HTML>
<HEAD>
<TITLE> 나의 홈페이지 </TITLE>
</HEAD>
</HTML>
```

- BODY : 문서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
<HTML>
<HEAD>
<TITLE> 나의 홈페이지 </TITLE>
</HEAD>
<BODY>
.....
</BODY>
</HTML>
```

#### 3-1. TITLE

각 HTML 문서는 제목이 필요하다. 문서에 제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TITLE> tag를 사용한다. <TITLE> tag는 <HEAD> tag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TITLE> tag안에는 다른 tag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타이틀을 선택할때 짧으면서도 명료하며 문서의 내용과 적절하게 맞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문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TITLE> 나의 홈페이지 </TITLE>

<TITLE> Image editing : Tutorial </TITLE>  
<TITLE> WorldCup 2002 </TITLE>

예 :

```
<HTML>
<HEAD>
<TITLE> The Tours for Summer 1996 </TITLE>
</HEAD>
</HTML>
```

### 3-2. Headings(큰제목)

글자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1부터 6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1로 지정했을 때 가장 크다.

```
<H1>....</H1>, <H2>....</H2>, <H3>....</H3>, <H4>....</H4>,
<H5>....</H5>, <H6>....</H6>
```

알아두어야 할 것이 HTML문서는 들여쓰기가 안된다.

예 :

```
<H1> Engine tune-up </H1>
<H2> Chang the Oil </H2>
<H2> Chang the Plugs </H2>
<H3> Chang the New Plugs </H3>
<H4> Install the Plugs </H4>
<H5> Testing the Plugs </H5>
<H5> Good Condition </H6>
```

### 3-3. P(Paragraphs)

<P>tag는 단락의 끝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줄을 바꾸기를 하는 <BR>에 비해 여백이 좀더 많이 생기면서 단락을 구분하도록 해준다. <P> tag는 한쪽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즉 </P>가 없다는 뜻이고 처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끝에 사용된다.

#### \* 주석문(Comments)

HTML 문서에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물론 브라우저상에서 해 될 때는 무시된다.

<!-- this is a comment --> 라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정도로도 웹상에서 간단한 문서를 구현할 수 있다.

예 :

```
<HTML>
<HEAD>
<TITLE> 나의 모든 것 </TITLE>
</HEAD>
<BODY>
<H1> 가족 </H1>
부모님, 동생 2인 행복한 집이다.
<H2> 아버지 </H2>
```

중간마당 9/23

여교수님!! 우리와 함께

#### 1. 왜 우리는 만나야 하는가?

우리 학교에는 12분의 여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과 만나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여겨주게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학생과 달리 교수님을 찾아 뵈고 자신의 미래를 상담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여학생들. 강의실에서조차 소외받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여교수님과 여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 참가하시는 교수님 : 환경공학부 김희경 교수님 외 4분

9월 23일(수) 5시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 「쉼터」  
이 날만큼은 쉼터를 남학생에게도 개방합니다.

리제

선의 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폐막제 9/24

여성 노래 한마당

왜 대동제때 여자는 남성 틈에 끼어서 나오나요??

누리제 만큼은 당당히 여자 혼자서 불러요 !!

9월 24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여성 각밴드 나와라

페미니스트 밴드 '다고'가 24일 학생회관 앞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가질 것이다. '다고'는 지리산 등지에서 불리는 삼신 할머니를 뜻하는 말로, 밴드 '다고'는 그 어원처럼 생명을 주는 힘으로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아우르는 노래를 만들고자 결성된 5인조 각밴드이다. 97년 결성된 이래 한국 노동 여성 노동자 문화제, 인권 문화제, 3.8여성대회 등에서 활발한 공연을 벌여왔다. 이번 '다고' 공연에서는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곡과 우리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곡을 들려줄 것이다.

일 시 : 9월 24일(목) 늦은 6시  
정 소 : 학생회관 앞 열린마당

브라우저의 폭의 비율에 따라 선의 폭이 유동적으로 변한다.

---

선의 굵기는 0. 브라우저 폭의 40%의 길이로 선을 긋는다.

### 형태가 정해진 텍스트

Startup Page

브라우저에서는 공백들이 무시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스페이스, 탭등으로  
QMS 2060 Print System에 들어있는 공백문자들은 그대로 보존된다.

<PRE>

공식 명칭입니다. <BR> HW address: 08.00.86.11.2A.3B.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천리안에서 go net.35하셔서 <BR>  
21번 모임방에 신입회원으로 등록하세요. <BR>

\* 위의 tag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 3-5. 목록 만들기

3-5-1. OL(Ordered List) : 번호가 붙여진 목록

번호가 붙여진 목록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수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번호가 붙여진 목록은 <OL>.....</OL>로 둘러싸이게 된다. 목록의 각 아이템은

[illegible]

<p> 라면 조리법 </p>

△OLV△

<니> 먼저 남비에 물을 적당히 끓인다.

<니> 라면과 스프를 넣고 몇분간 둔다.

</OL>

Outline Type : 만약에 특정한 알파벳이나 로마문자를 순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다.

<OL TYPE = A|a|I|i>, 'A' 일 경우 순서는 A, B, C으로 나가고 'I' 일 경우 i, ii, iii 등으로 순서가 붙는다.

3-5-2. UL(Unordered List) : 정렬되지 않은 목록

순서에 관계없는 목록을 만들 때 사용되며, <UL>.....</UL>을 사용한다.  
단, OL에 비해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볼릿문자(●, ■, □)를 사용한다.

이것은 과일 목록이다.<P>

<UL>

<LI> 사과

<니> 포도

&lt;I&gt; 白기

볼릿문자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이용한다.

<UL TYPE = DISC|CIRCLE|SQUARE>

```
<LI TYPE = DISC|CIRCLE|SQUARE>
```

순서가 없는 목록 &lt;P&gt;

<UL TYPE = DISC>

&lt;니&gt; 여흥관인

<UL TYPE = SQUARE>

<11> 포도

&lt;니&gt; 참외

<니> 자두

11

&lt;니&gt; 겨울과 일

<UL TYPE = SQUARE>

$\langle L \rangle$

<니> 사과

3-5-3. DL(Definition List) : 용어의 정의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 사용한다. <DT>(Term)와 <DD>(Defintion)를 함께 사용한다.

### 3-5-4. BLOCKQUOTE

쓰여진 글자들을 조금 들여 씬으로써 인용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BLOCKQUOTE>.....</BLOCKQUOTE>의 형식이다.

### 3-5-5. ADDRESS

일반적으로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나탄낼 때 주로 쓰이며 보통 문서의 끝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4. 연결(LINK) 하기

### 1. 문서의 연결

HTML 문서를 연결하려면 <A> ..... </A> tag를 사용한다. <A> tag들은 다른 tag들과 다르게 연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추가적인 속성(NAME, HREF, TITLE)들인데, 일반적으로 HREF (Hypertext Reference) 속성을 많이 사용한다.

형식 : <A HREF = "URL"> ..... </A>

<A> .... </A> 사이의 모든 텍스트는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밝은 부분으로 표시되거나 밑줄이 그어지거나 파란색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많이 지정함)으로 표시한다. 즉, 마우스로 이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두면 좋은 것 - 1>

\* Link <A HREF="URL"> ... </A> 에서, "URL"부분에 Link하고 싶은 프로토콜을 쓰는데,

| 프로토콜       | 형식        | 예제                                                                                                                                                                                                  |
|------------|-----------|-----------------------------------------------------------------------------------------------------------------------------------------------------------------------------------------------------|
| 웹 사이트      | http://   | <A HREF="http://www.yahoo.com"> YAHOO </A>라고 Link가 되었다면 브라우저에는 "YAHOO"라는 글자만 나타나고 글자를 클릭하면 YAHOO로 이동하게 된다.                                                                                          |
| FTP        | ftp://    | <A HREF="ftp16.netscape.com"> NETSCAPE </A>                                                                                                                                                         |
| GOPHER     | gopher:// | <A HREF="gopher://....."> ..... </A>                                                                                                                                                                |
| TELNET     | telnet:// | <A HREF="telnet://....."> ..... </A>                                                                                                                                                                |
| NEWS GROUP | news:     | <A HREF="news:....."> ..... </A>                                                                                                                                                                    |
| 메일 보낼 때    | mailto:   | Please <HREF="mailto:northk@soback.kornet.nm.kr"> MAIL </A> to me if you have a idea. 이라고 작성한다면 브라우저에서는 Please MAIL to me if you have a idea라고 나타나고 MAIL을 클릭했을 때 netscape 브라우저에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
| 자신의 PC 파일  | file://   | <A HREF="C:WinternetWweb-homeWindex.html"> My Homepage </A>                                                                                                                                         |

<알아두면 좋은 것 2>

\* 상대경로 : 상대경로명의 연결은 operating system과 관계없이 Unix 스타일의 경로 지정 방식을 사용한다. 즉, 디렉토리의 구분을 '/'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상위 디렉토리를 나타낼 때는 '..'를 이용한다.

|                          |                                           |
|--------------------------|-------------------------------------------|
| HREF = "file.html"       | file.html이 현재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다.               |
| HREF = "files/file.html" | file.html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서 files라는 디렉토리에 있다. |
| HREF = "../file.html"    | file.html 파일이 바로 윗 디렉토리에 있다.              |

\* 절대경로 : 자신의 컴퓨터에 웹 문서를 연결할 때 절대 경로명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 경로명은 현재의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서 절대 경로명은 최상단에서 부터 계층적으로 이름을 지정한다. 절대경로명은 항상 '/'로 시작한다.

|                               |                                        |
|-------------------------------|----------------------------------------|
| HREF = "/tt/tty/file.html"    | file.html은 /tt/tty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다.       |
| HREF = "/c:/tt/tty/file.html" | file.html은 C하드디스크에서 tt/tty 디렉토리 밑에 있다. |

웹문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경로는 대부분 상대경로이다. HTML문서를 연결할 때 절대 경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쉬워 보일지라도 나중에 이 문서를 다른 컴퓨터에 이식하기가 어렵게 된다. 문서를 연결할 때 절대 경로명을 사용하면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옮기거나 파일 이름을 바꿀 경우 웹 문서의 이름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반면에 상대 경로는 문서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4-2. 그림 이미지 넣기

Link에서는 그림을 연결해서 지시자 부분을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의미는 그림이 로딩된다는 뜻이 더 나올 것 같다.

형식 : <IMG SRC = "그림 화일" >

IMG : image, SRC : source, URL : 그림화일 경로

### 4-2-1. <IMG SRC = "URL" ALIGN = TOP|BOTTOM|MIDDLE>

그래픽 파일을 텍스트에 맞추어 top(위),bottom(아래),middle(가운데)로 정렬한다.

```
<html>
<title> 그림 연습 </title>
<center><head><h2> 그림 정렬1 </h2></head></center>
<body>
<img src = "animal.gif" align=top>
<img src = "animal.gif" align=middle>
<img src = "animal.gif" align=bottom>
</body>
</html>
```

### 4-2-2. <IMG SRC = "URL" WIDTH="?" HEIGHT="?">

로딩할 그림의 폭과 높이를 픽셀 단위로 지정한다. 그림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며 "?" 부분에 숫자를 적는다.

```
<html>
<title>그림 연습</title>
<head><h2>그림 정렬 2</h2></head>
<body>
<img src = "animal.gif" width="40" height="40">
<img src = "animal.gif" width="60" height="60">
<img src = "animal.gif" width="80" height="80">
</body>
</html>
```

### 4-2-3. <IMG SRC = "URL" ALIGN=LEFT|RIGHT>

Light, Left는 브라우저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림을 정렬한다.

```
<html>
<title>그림 연습</title>
<head><h2>그림 정렬 3</h2></head>
<body>
<img src = "animal.gif" align=left>
<img src = "animal.gif" align=right>
</body>
</html>
```

### 4-2-4. <IMG SRC = "URL" BORDER=?>

그림을 로딩하면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tag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며 굵기도 지정할 수가 있다.

```
<html>
<title>그림 연습</title>
<head><h2>그림 정렬 4</h2></head>
<body>
<img src = "animal.gif" border=3>
</body>
</html>
```

### 4-2-5. <IMG SRC = "URL" HSPACE=? VSPACE=?>

그림 주위에 여백을 만든다. HSPACE는 좌/우 여백, VSPACE는 위/아래의 여백을 말한다.

```
<html>
<title>그림 연습</title>
<head><h2>그림 정렬 5</h2></head>
<body>
<img src = "animal.gif" hspace=50 vspace=20>
</body>
</html>
```

## <중합 예제>

```




<h3><i><font size=+3>i</font> want to offer a brief word of
thanks to everyone who visit my homepage on web. This is named
NET MANIAC because I love the internet so much. This web is
best viewed using Netscape 2.0 or higher. If you do not have this
browser, you can download

<a
href="ftp://ftp16.netscape.com"><blink>Netscape</blink></a>
by clicking on the link. To enter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NET
MANIAC WEB, click on the items. If you want to find information
on a specific topic quickly, you can use NET SEARCH item. I'm so
```

glad to meet you and I hope you enjoy while you stay</i></h3>  
<br>

위의 문서는 그림 파일을 로딩의 한가지 예이다. 위 부분의 이미지 파일을 표현한 부분을 보기 바란다. 물론 속성은 혼합해서 쓸 수 있다.

## 5. Body (몸체)

Body는 본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다른 것들 보다 재미있는 속성들이 많다. 따로 몸체를 설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 또한 속성은 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여러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 5-1. Background (배경)

보통은 netscape 같은 브라우저의 윈도우 default 색은 회색이다. 그러나 배경의 속성을 이용하면 원하는 색을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BODY BGCOLOR = "#\$\$\$">와 같이 쓴다.

\$\$\$는 차례대로 빨강/ 초록/파랑을 나타내는 HEX CODE라고 하며 이것을 적당하게 합성하면 보기 좋은 색깔을 얻을 수 있다.

<BODY BGCOLOR = "#ff0000"> 빨간색 배경

<BODY BGCOLOR = "#00ff00"> 초록색 배경

<BODY BGCOLOR = "#0000ff"> 파랑색 배경

### 5-2. Background (배경그림)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벽돌, 암석, 나무들로 구성 되어진 배경들을 보았을 것이다. Background 속성을 이용하면 자신의 배경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URL(Uniform Resource Locators)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경 그림의 파일 path(경로)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BODY BACKGROUND = "URL">

### 5-3. Text Color (문장 색깔)

기본 문장의 색깔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BODY TEXT = "#\$\$\$">으로 표현한다.

<BODY TEXT = "#000000">은 문자가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 5-4. Link Color

쉽게 말하면 현재 어떤 다른 HTML문서로 Link 되어 있다면 이 속성을 써서 나타낸다. 쉽게 말해서 브라우저상에서 마우스의 커서가 손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통처리하는데 쓰인다.

<BODY LINK = "#\$\$\$">

<BODY LINK = "#0000ff">라 하면 브라우저에서 Link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 5-5. Visited Link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미 방문한 HTML 문서인 경우, 즉 사용자가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곳을 쉽게 나타내 주는 속성이다. <BODY VLINK = "#\$\$\$">  
<BODY VLINK = "#ff0000">은 해당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이미 가본 적이 있다면... 색깔의 변화들을 약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 5-6. Active Link

마우스로 link된 부분을 클릭하고 아직 아직 손을 떼지 않았을 때의 색깔을 말한다. <BODY ALINK = "#\$\$\$">

<BODY VLINK = "#00ff00">은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 5-7. FORMAT의 자세한 부분

일종의 문서의 모양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글꼴의 크기라든지 모양, 텍스트의 형태같은 것을 말한다.

5-7-1. Bold <B> ..... </B> : 글씨를 굵게 해 준다.

5-7-2. Italic <I> ..... </I> : 이탤릭체를 나타낸다.

5-7-3. Typewriter <TT> ..... </TT> :  
고정폭 글꼴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보통 윈도우에서 표시되는 트루타입 문자들은 가변폭이지만, 이 지시자는 같은 자리를 위치하게 한다. 예를들면 Bold체와 Italic체는 글자 폭이 다르지만 <TT> tag를 사용하면 고정폭으로 만들 수 있다.

5-7-4. Blink <BLINK> ..... </BLINK> :  
이 지시자 사이에 위치하는 글씨는 깜박깜박 거린다. 웹사이트를 돌아 다니다 보면 여러번 보았을 것이다.

5-7-5. Preformatted <PRE> ..... </PRE> :  
HTML문서상에서 엔터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tag는 쉽게 설명하자면 문서 작성자가 표현한 대로 텍스트를 출력해 준다.

5-7-6. Emphasis <EM> ..... </EM> :강조를 나타내며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5-7-7. Strong Emphasis <STRONG> ..... </STRONG> :  
글자의 강조를 위해 쓰이며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다. 글씨체는 Bold체

5-7-8. Font Size <FONT SIZE = ?> ..... </FONT> :  
<H#>..... </H#>지시자는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정한 텍스트를 다른 크기로 할 때 사용한다. 특히 할만 한 것은 '?' 부분에 폰트 크기를 넣을 때 '+', '-'를 첨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는 기본 글꼴 크기보다 크고 '-'는 작다.

5-7-9. Horizontal Rule <HR> :  
이 지시자는 입체 모양의 선으로 아래 위의 텍스트를 나눈다.

1. <HR ALIGN = LEFT|RIGHT|CENTER> : <HR>로 나누어진 선을 사

용자가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중앙으로 정렬시킬 때 사용한다.

2. <HR SIZE = ?> : 선의 굵기를 지정한다. "?"에 숫자를 넣는다.
3. <HR WIDTH = ?> : 선의 폭을 지정한다.
4. <HR WIDTH = %> : 브라우저의 폭의 비율로 선의 폭을 정할 수 있다.

## 6. TABLE 만들기

우리는 이미 목록을 나타내는 형식에 대해 배운바 있다. 웹사이트를 다니 다 보면 잘 정렬 되어지고 일목 요연한 Box 모양의 상자를 볼수 있다. 이 것이 Table인데 이것은 TABLE 요소를 사용하여 지정된다. Caption을 사용할 수 있고 각 셀은 텍스트, 여러개의 패러그래프, 리스트, 헤더 등을 담을 수 있다. 다음의 간단한 예를 보자.

```
<table border>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

BORDER의 속성은 각 셀을 둘러싸는 선을 그린다. TH 요소는 셀 텍스트 앞에 있어야 하고 TD 요소는 데이터 셀 텍스트 앞에 있어야 한다. TR 은 테이블 행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다. 다음은 한칸이 몇 개의 세부사항으로 나뉘는 경우에 COLSPAN 또는 ROWSPAN을 써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
<table border>
<tr><th colspan=3> Morning Menu </th>
<tr><th>Food</th> <th>Drink</th> <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br>
<table border>
<tr><th rowspan=3> Morning Menu</th>
<th>Food</th> <td>A</td></tr>
<tr><th>Drink</th> <td>B</td></tr>
<tr><th>Sweet</th> <td>C</td></tr>
</table>
```

경계선을 두껍게 하여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BORDER, WIDTH, HEIGHT를 이용 테이블의 사이즈를 지정한다.

```
<table border = 10>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br>
<table border width=170 height=100>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

또한 각 테이블 내의 엔트리 사이의 간격과 한 엔트리 셀의 크기를 정할 때는 CELLSPACING, CELLPADDING을 사용한다.

```
<table border cellpadding=10>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br>
<table border cellspacing=10>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td>A</td><td>B</td><td>C</td>
</table>
```

다음은 테이블 내의 엔트리에서 값들이 배치되는 모양이다.

```
<table border width=16>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th>Food</th><th>Drink</th><th>Sweet</th>
<tr>
<td align=left>A</td>
<td align=center>B</td>
<td align=right>C</td>
</table>
<br>
<table border height=100>
<caption> A simple table </caption>
<tr>
<th>Food</th><th>Drink</th>
<th>Sweet</th><th>others</th>
<tr>
<td valign=top>A</td>
<td valign=middle>B</td>
<td valign=bottom>C</td>
<td valign=baseline>D</td>
</table>
```

## 7. Frame 만들기

Netscape 2.0의 프레임 기능의 도입은 웹문서의 새로운 변신과 논란으로 전개되었다. 간단한 3개, 4개 프레임 태그를 이용해서 일반잡지에서나 가 능했던 구성을 갖게 되었지만 호환성이 떨어진다. 좋은 예로 MS익스플 로에서는 프레임 기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나온 3.0 버전은 다르지만 말이다. 하나의 브라우저에 하나의 문서를 디스플레이 하는 통념을 깨고 서로 다른 여러개의 문서를 디스플레이 시킬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문서는 상호간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위의 예는 4개의 HTML문서를 사용하고 있다.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프 레임을 정의하는 HTML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7-1. 프레임을 위한 태그들

#### 7-1-1. tag

프레임을 정의하는 문서를 작성할때는 대신 **frameset**태그를 사용한다.

```
<html>
<head>
</head>
<body bgcolor="#c0d9d0" text="#000000" link="#0000ff" vlink="#4f2f4f"
alink="#ff0000">
<center>
<p>

<i>Please send a
<a href="mailto:northk@soback.kornet.nm.kr"> mail</a> if you have a
good idea.</i>
<p>
[<a href="friend.html" target="_top"><b>Friends</b></a>
| <a href="net.html" target="_top"><b>Net People</b></a>
| Favorite Site
| <a href="guestbook.html" target="_top"><b>Visitor</b></a>]<br>
[<a href="wwwboard/wwwboard.html" target="_top">
<b>Bulletin Board</b></a>
| <a href="search.html" target="_top"><b>Net Search</b></a>
| <a href="index.html" target="_top"><b>Home</b></a>]
</center>
</body>
</html>
```

#### 7-1-2. COLS 속성

이 속성은 브라우저 윈도우를 수직으로 나누어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이다. 각 프레임의 너비가 COL 속성값으로 ","로 구분되어 지정된다. 프레임의 너비를 지정하는 형식은 pixel값,

전체너비에 대한 %값, \*\*로 프레임의 너비를 표시하게 된다.

```
<HEAD>
<TITLE>Frames example - cols</TITLE>
</HEAD>
<FRAMESET COLS="100,50%,*">
<FRAME SRC="about:blank">
<FRAME SRC="about:blank">
<FRAME SRC="about:blank">
</FRAMESET>
```

위의 예는 첫 번째 프레임은 100pixel의 폭을 갖고 두 번째는 윈도우 전체의 50% 너비로 표시되고 세 번째는 남은 공간을 걸쳐 표시된다.

#### 7-1-3. ROWS 속성

화면을 수평방향으로 구분하여 프레임을 생성한다.

```
<HEAD>
<TITLE>Frames example - rows</TITLE>
</HEAD>
<FRAMESET ROWS="*,*">
<FRAME SRC="about:blank">
<FRAME SRC="about:blank">
</FRAMESET>
```

위의 문서를 실제 디스플레이 했을 때 태그가 동작 하지 않는 것을 알수있다. 이것은 frameset에 포함될 내용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7-1-4. 태그

프레임 구성을 정의한후 실제 — 프레임에 포함될 문서를 지정해야 한다

<frame src="document URL">

즉, <FRAMESET> 태그에서 정의하는 프레임 수만큼 태그 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HEAD>
<TITLE> Frames example - <FRAME> tag </TITLE>
</HEAD>
<FRAMESET ROWS="*, *,*">
<FRAME SRC="doc1.htm">
<FRAME SRC="doc2.htm">
<FRAME SRC="doc3.htm">
</FRAMESET>
```

#### [알아두기 - 태그의 속성]

- scrolling (속성값:auto(default값)): 프레임의 내용이 프레임 크기보다 큰 경우 프레임 옆이나 아래에 스크 롤바를

붙여준다.

- scrolling (속성값:no): 스크롤바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경우, 즉 scrolling="no"경우로 지정하는 경우 프레임의 범위가 넘어서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볼 수 없다.
- scrolling (속성값:yes): 무조건 스크롤바를 디스플레이 한다. scrolling="yes"로 지정.
- noresize: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프레임 보더를 변경 시킬 수 있는데, 이 태그는 프레임 사이즈를 고정시켜 크기를 조정할 수 없다.
- marginheight (속성값: pixel): 프레임 내의 문서의 위, 아래 공간을 지정할 때.
- marginwidth (속성값: pixel): 프레임 내의 문서의 좌우 공간을 지정할 때.

## 7-2. 복잡한 형태의 프레임 작성

### 7-2-1. ROWS, COLS 속성 결합 사용 및 <FRAMESET> 태그 안에 <FRAMESET> 태그 사용 하기

아래의 예는 신체 화면을 두 개의 수평방향 프레임으로 분할한 것이다. 즉 아래 프레임(ROWS 사용)의 높이는 80pixel로 고정되어 있다. 일단 기본 frameset의 저의를 하였으면 다음은 상단의 프레임을 수직방향의 두 프레임으로 분할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 frameset을 정의한 <FRAMESET> 태그안에 새로운 <FRAMESET> 태그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FRAME> 태그를 <FRAMESET>으로 바꾸고 그 안에 새로운 <FRAME>을 위치시켜야 한다. COLS 속성을 갖는 두 번째 <FRAMESET> 태그는 두 개의 열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열의 폭은 기존 프레임 폭의 30%가 되고 두 번째 열의 폭은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
<HTML>
<HEAD>
<TITLE> Complex Frames Exercise </TITLE>
</HEAD>
<FRAMESET ROWS="*, 80">
<FRAMESET COLS="30%, *">
<FRAME SRC=dummy.htm>
<FRAME SRC=dummy.htm>
</FRAMESET>
<FRAME SRC=dummy.htm>
</FRAMESET>
</FRAMESET>
</HTML>
```

#### [알아두기]

- 화면과 같은 크기의 폭을 갖는 프레임 : ROWS 속성 사용

- 화면과 같은 크기의 높이를 갖는 프레임 : COLS 속성 사용

## 7-3. FRAMESET에 문서 포함 시키기

위의 그림은 7-2의 예를 더 응용한 것이다. 여기서 프레임에 이름 붙이기, 각 프레임에 문서 연결 등을 알아 보자. 우선 위의 그림의 간단한 동작을 알아보자. 왼쪽 프레임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오른쪽 프레임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FRAME> 태그에서 NAME 속성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 이름을 지정한다. 하이퍼 링크를 지정하는 <A> 태그의 TARGET 속성에 그 하이퍼링크가 지정하고 있는 문서가 실제로 디스플레이 될 이름 지정해야 한다.

```
<frame src="document URL" name="frame name">
```

```
<HTML>
<HEAD>
<TITLE>HTML Reference</TITLE>
</HEAD>
<FRAMESET ROWS="*, 80">
<FRAMESET COLS="30%, *">
<FRAME SRC="htmlconf.htm" NAME="Contents">
<FRAME SRC="05notesf.htm" NAME="Chapter">
</FRAMESET>
<FRAME SRC="htmlfoot.htm" NAME="Footer">
</FRAMESET>
</HTML>
```

이것은 왼쪽 프레임 이름은 "Contents", 오른쪽은 "Chapter", 아래는 "footer"라고 지정해 놓았다. 여기서 왼쪽 문서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오른쪽 프레임에 표시될 수 있게 한다. 아래의 예가 그것인데,

```
<a href="favorite2.html#ftp" target=favorite2> FTP </a>처럼 <A>
태그에 target속성을 사용하여 문서를 디스플레이할 윈도우를
지정한다. 오른쪽 프레임 이름이 "favorite2"라고 지정되었을 때
왼쪽의 favorite1 문서에는 모든 <A> 태그의 target 속성값을
"favorite2"로 지정한다.
```

```
! -<favorite.html> - !
<html>
<head>
<title> My Favorite Site</title>
</head>
<frameset cols="35%, 65%">
<frameset rows="70%, 30%">
<frame src="favorite1.html" name="favorite1" scrolling=yes
marginheight=2>
```

```

<frame src="move.html" name="move" scrolling=no marginheight=2>
</frameset>
<frameset rows="100%">
<frame src="favorite2.html" name="favorite2" scrolling=yes
marginheight=2>
</frameset>
</frameset>
</html>

```

! - favorite1.html - !

```

<html>
<head>
</head>
<body bgcolor="#ffffff" text="#000000" link="#0000ff" vlink="#4f2f4f"
alink="#ff0000">
<p>
<center>
<p>

</center>
<p><center><h3><i>INDEX OF HOT LINKS</i></h3></center>
<blockquote>
<li><i><a href="favorite2.html#new" target=favorite2> NEWS SITE
</a></i>
<li><i><a href="favorite2.html#mov" target=favorite2> MOVIE </a></i>
<li><i><a href="favorite2.html#sci" target=favorite2> SCIENCE </a></i>
<li><i><a href="favorite2.html#uni" target=favorite2> UNIVERSITY
</a></i>
<li><i><a href="favorite2.html#art" target=favorite2> ART </a></i>
<li><i><a href="favorite2.html#ftp" target=favorite2> FTP </a></i>
<li><i><a href="favorite2.html#mag" target=favorite2> MAGAZINE
</a></i>
<li><i><a href="favorite2.html#pro" target=favorite2PROGRAMMING
</a></i>
</blockquote>
<p>
</body>
</html>

```

! - favorite2.html - !

```

<html>
<body bgcolor="#add8e6" text="#000000" link="#0000ff" vlink="#4f2f4f"
alink="#ff0000">
<p>
<center>

</center>
<ul>


```

```

<i><a name="new">NEW SITE FOR THE LATEST NEWS</a></i>
<blockquote>
<li><a href="http://www.cnn.com" target="new"><i>America CNN</i></a>
<li><a href="http://www.xmission.com/~insearch/links.html"
target="_top"><i>Infosearch Broadcasting Links</i></a>
<li><a href="http://www.nbc.com" target="_top"><i>America NBC</i></a>
<li><a href="http://www.bbcnc.org.uk" target="_top"><i>England
BBC</i></a>
<li><a href="http://www.realaudio.com/contentp/abc24" target=
"_top"><i>England ABC</i></a>
<li><a href="http://www.mbc.co.kr" target="_top"><i>Korea MBC</i></a>
<li><a href="http://www.nhk.or.jp" target="_top"><i>Japan NHK
TV</i></a>
<li><a href="http://www.chosun.co.kr" target="_top"><i>Digital CHOSUN
NEWSPAPER</i></a>
<li><a href="http://www.kwangju.co.kr" target="_top"><i>KWANGJU
NEWSPAPER</i></a>
<li><a href="http://www.korealink.co.kr" target="_top"><i>Korea
Link</i></a>
<li><a href="http://pathfinder.com" target="_top"><i>Pathfinder</i></a>
<li><a href="http://www.usatoday.com" target="_top"><i>USA
TODAY</i></a>
<li><a
href="http://www.pathfinder.com/@@wNe9a9B20QAAQHwY/time/magazi
ne/magazine.html" target="_top"><i>Time Magazine</i></a>
</blockquote>

<li><a name="mov">MOVIE</a></i>
<blockquote>
<li><a href="http://soback.kornet.nm.kr/~cdall" target="_top"><i>Movie
world for mania</i></a>
<li><a href="http://www.hollywood.com"
target="_top"><i>Hollywood</i></a>
<li><a href="http://www.iworld.net/Entertainment/GingkoBed"
target="_top"><i>Gingkobed</i></a>
</blockquote>

<i><a name="sci">SCIENCE</a></i>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 이하생략.....

```

[알아두기 - target name에 관하여]

- TARGET="\_TOP":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문서들을 지우고 다른 문서를 디스플레이 시킨다.
- TARGET="\_BLANK": 기존창은 그대로 두고 브라우저의 새창을 열어 링크된 문서를 로드한다.(NEW를 대신해서 쓴다.)
- TARGET="\_SELF": 링크된 새로운 문서를 현재의 프레임으로 가져온다.

- **TARGET="\_PARENT"**: 현재 프레임의 상위 프레임을 읽어들인다.

## 네스케이프 활용

### 1. 네스케이프의 화면 구조

Netscape의 화면은 크게 8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1. 타이틀바 (Title Bar)

일반적인 MS Windows 프로그램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타이틀바에는 현재 읽힌 페이지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Page란 Web Server(웹서비스 제공자)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웹Site에 접속해서 처음 나타나는 문서를 Home Page라 합니다. 별로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어렵다고요?\*)

#### 1-2. 메뉴바 (Menubar)

Netscape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됩니다. 각 메뉴항목의 상세한 기능은 다음 강좌에 설명됩니다.

#### 1-3. 툴바 (Toolbar)

메뉴바 바로 밑에 보이는 그림이 그려진 버튼들의 집단이 툴바입니다. 다음과 같은 9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눌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하! 바로 이그이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안 나온다고요? 그건,,, 별들에게 물어봐!)

- 'Back'
- 'Forward'
- 'Home'
- 'Reload'
- 'Images'
- 'Open'
- 'Print'
- 'Find'
- 'Stop'

메뉴바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뉴항목들만을 골라내서 이 용하기 쉽도록 아이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메뉴바를 이용하지 않고도 툴바만으로 충분 합니다. (요거 잘 활용하면 좋지!)

#### 1-4. 로케이션 필드 (Location Field)

'Location:'이라는 라벨의 우측에 있는 입력창이 로케이션 필드이며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URL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치면 지정된 사이트로의 접속도 가능합니다. 이 필드의 앞에 있는 라벨은 처음에는 'Location' 입니다. 그러나 Netscape의 상태에 따라서 'Netsite', 'Location', 'Go to' 중의 하나로 변경됩니다.

(자!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지정하도록 한것입니다. 일종의 집주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 'Netsite' : Netscape사에서 만든 WWW Server로부터 페이지를 가져 온 경우
- 'Location' : Netscape Server 이외의 WWW 서버로부터 페이지를 가져온 경우
- 'Go to' : 이용자가 필드에 새로운 URL을 입력하는 경우

'Netsite'와 'Location'의 표시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Netscape사의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되는 경우에 'Netsite'로 표시하는 것은 Netscape사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 1-5. 디렉토리 버튼 (Directory Buttons)

로케이션 필드 밑에있는 버튼들의 집합이 디렉토리 버튼입니다. 다음과 같은 6개의 버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들도 한번씩 눌러 보세요. 쉽죠!)

-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et Search'
- 'Net Directory'
- 'Software'

Netscape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페이지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넷스케이프사의 웹 서버에 접속 하게 되는 것이죠.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6. Netscape 버튼

디렉토리 버튼의 우측에 있는 버튼이 Netscape 버튼입니다 (한가운데 크게 'N'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Netscape가 현재 네트워크 연결중인가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연결중인 경우에는 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Netscape 버튼을 누르면 Netscape사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즉 URL을 이용해 접속할 필요가 없죠.

#### 1-7. 주화면 (Content Area)

읽어들인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다른 문서와 연결되는 링크들은 밑줄과 함께 특별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그 링크를 선택하면 다른 문서가 읽혀서 표시됩니다. 표시된 내용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복사, 검색, 저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Tip 하나!

화면 해상도가 좋으면 즉 640\*480 보다는 800\*600 이면 글자는 작게 보이지만 많은 정보(한 Page의)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는 윈도우3.1의 설치관리자(SETUP)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면"을 조정하여 설정된 항목을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변경시 해당 VGA카드의 디스플레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맡길수 밖에 없군요...

##### \*Tip 둘!

해상도는 해상도고 요렇게 하면 다소 많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무어냐 하면, 옵션메뉴에서 위의 '툴바', 'URL 표시창', '디렉토리 버튼 표시창' 등의 영역을 사라지게 할수가 있습니다. 체크표시를 해제하면 되죠. 해 보세요. 그 세가지 영역이 사라지면 그 만큼의 Page를 더 볼수가 있죠.

##### \*Tip 셋!

unknown (생각이 안 나네요. 별들에게 물어봐야지)

#### 1-8. 상태표시 (Status Message)

화면의 가장 밑에 있는 표시영역에 현재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 왼쪽에 보이는 보안표시는 현재의 연결이 일반적인 연결이면 끊어진 열쇠형태를 보여주고 보안상태의 연결이면 완전한 형태의 열쇠형태를 보여줍니다.

- 두번째의 표시영역에는 접속중인 사이트의 URL 또는 WWW 문서를 읽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페이지를 모두 가져온 후에는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링크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 세번째 영역에는 페이지 로드작업의 진행 정도를 표시합니다.

- 가장 오른쪽에 나타난 편지봉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자우편 화면이 나타납니다.

(2.0버전에서의 보안체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물론 넷스케이프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넷스케이프 16비트용의 보안체계를 풀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기억 나세요? 이것을 개선한 프로그램이 2.0 beta 시리즈 입니다. 미국에서는 64비트 보안체계를 국가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슈퍼컴퓨터 몇대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야 이 64 비트의 암호를 풀수 있을겁니다. Netscape사의 말이 맞다는 말로 해석 해도 좋겠습니다.(in my opinion)

net\_2.htm

# 네스케이프 활용

## 2. 메뉴 살펴보기

### 2-1. File 메뉴

#### 2-1-1. New Web Browser

새로운 Netscape 창을 생성합니다. 여러 문서의 내용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자신의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름... 제 컴퓨터가 486DX-100/8MB인데도 넷스케이프 창을 두개 열어 놓고 쓸러니까 엄청난 Overhead(오버헤드)가 있더군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이건 모뎀이 빨라도 어쩔수 없음. 윈도우때문 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뭐 심각한 이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램이 16MB정도는 되어야 다중 창을 열어놓고 마음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연습삼아서 한번 열어보는것 은 좋지만 자주 해보지는 마세요. 알았죠?)

#### 2-1-2. New Mail Message (Ctrl+N)

전자우편송신 화면을 열고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넷스케이프에서도 E-mail을 보낼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환경정보"를 설정해야만 보낼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못 기다리겠더군요? 빨리 해달라고요? 그렇게 못해!!! 기다려요!!!)

#### 2-1-3. Mail Document (Ctrl+M)

전자우편송신 화면을 열고 현재 보여지는 문서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냅니다. 제목과 내용이 자동적으로 지정됩니다.

(요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기존의 문서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는 거니까...)

#### 2-1-4. Open Location (Ctrl+L)

URL을 입력받아서 지정된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들입니다. 툴바의 'Open' 버튼과 동일.

(네스케이프를 막 설치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넷스케이프사의 URL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초에 넷스케이프사에만 접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접속해 보고 싶으면 이 메뉴의 "Open Location"을 선택하거나 툴바의 'Open'을 눌러보면 URL을 적으라는 문서상자가 나옵니다. 그곳에 웹Site를 적으시면 됩니다.)

#### 2-1-5. Open File (Ctrl+O)

디스크 상의 파일을 읽어들입니다. HTML 파일 또는 일반 텍스트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존에 HTML로 저장한 파일 또는 사용자가 HTML로 작성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읽기전용 문서편집기 정보 생각하면 됩니다.)

#### 2-1-6. Save As (Ctrl+S)

Netscape의 주화면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파일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또는 HTML 파일 등

화면의 Page를 내 디스크에 저장하고 싶으라...

할수 있어요. 이 메뉴에 클릭하면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묻게 되죠? 자, 한번 해보세요. 대화상자 보이죠? 그 Page는 두가지 종류로 저장 가능합니다. 하나는 HTML 문서파일로 저장됩니다.(이것은 꼭

Browser(넷스케이프나 모자익 등)에서만 읽어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글자들과 그림들이 보이죠.)

그럼, 일반적인 문서형태(흔히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려면요? 그건 대화상자의 아래 "파일 형태" 부분에서 "Text File"형태를 선택해 놓고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에디터에서 불러와 편집이 가능하죠.

두가지 방식으로 저장 해 놓고 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Hwp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두 파일을 불러와 어떻게 저장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1-7. Page Setup

프린터와 관련된 선택사항들을 지정합니다.

(윈도우에서의 프린터 셋업과 비슷합니다.)

#### 2-1-8. Print

현재 보여지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현재 문서 그대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보다는 레이저가 훨씬 선명하고 속도도 빠르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 2-1-9. Print Preview

현재 보여지는 프린트될 형태를 미리 보여줍니다. 'Close'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Hwp의 "화면보기"기능과 흡사)

#### 2-1-10. Close

현재의 Netscape 창을 닫습니다. 마지막 창을 Close하면 Netscape가 종료됩니다.

(이것은 'New Web Browser' 메뉴로 여러개의 창을 만들었을 때 유용합니다.)

#### 2-1-11. Exit

Netscape를 종료시킵니다

### 2-2. Edit 메뉴

#### 2-2-1. Undo (Ctrl+Z)

만약 가능하다면 가장 최근에 수행한 작업을 취소시키고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 2-2-2. Cut (Ctrl+X)

현재 선택된 내용을 없애고 그 내용을 Windows의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로케이션 필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2-2-3. Copy (Ctrl+C)

현재 선택된 내용을 Windows의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 2-2-4. Paste (Ctrl+V)

Windows의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현재 선택표시가 있는 곳으로 복사합니다. 로케이션 필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2-2-5. Select All (Ctrl+A)

현재 보여지는 문서의 모든 내용을 선택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 2-2-6. Find (Ctrl+F)

현재 보여지는 문서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내용이 많은 문서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툴바의 'Find' 버튼과 동일.

#### 2-2-7. Find Again (F3)

가장 최근에 검색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검색합니다.

### 2-3. View 메뉴

#### 2-3-1. Reload (Ctrl+R)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를 다시 로드합니다. 가장 최신의 페이지가 읽히게 됩니다. 페이지를 로드하는 중에 중단시킨 경우에 다시 그 페이지를 로드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툴바의 'Reload' 버튼과 동일.

#### 2-3-2. Reload Cell

하나의 프레임(frame)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을 다시 로드합니다. 프레임은 주 화면을 여러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Netscape Navigator 2.0에 새로 도입된 기능입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

#### 2-3-3. Load Images (Ctrl+I)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페이지가 로드될 때 이미지들이 자동적으로 로드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Auto Load Images' 옵션이 선택되지 않으면 페이지 로드속도가 증가하는 대신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경우에 이미지들을 보기위해서 이용됩니다. 툴바의 'Images' 버튼과 동일.

(글자들만을 로드(불러오기)시키면 페이지 읽는 속도가 많이 개선되죠. 하지만 보통의 페이지들이란게 대부분 그림조작 (이미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까지 읽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웹을 사용 한다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옵션"메뉴의 이미지 불러오기 취소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설정해 놓으면 그 후로는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기때문에 글씨만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뭐, 정보검색이란게 글자들을 찾는거니까 그렇죠...)

#### 2-3-4. Refresh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네트워크로 원래의 사이트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문서의 최신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2-3-5. Document Source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HTML 소스가 별도의 창에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클립보드로의 복사는 가능합니다. (복사 : Ctrl+C) (Clipboard가 뭐다요? 이것은 윈도우의 임시기억장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복사"해 놓으면 윈도우는 이것을 "클립보드"라는 곳에 넣어 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조작을 "붙이기"하게 되면 클립보드에 있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윈도우 책 보면 다 나오는 말인데... 윈도우 공부좀 합시다...)

#### 2-3-6. Document Info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의 연결 상황, 문서의 종류/크기/작성일자/보안상태 등을 보여줍니다.

### 2-4. Go 메뉴

#### 2-4-1. Back (Alt+<)

History 목록에서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바로 앞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History 목록은 이번에 Netscape Navigator를 실행시킨 후에 접속되었던

페이지들에 대한 참조 목록입니다. 툴바의 'Back' 버튼과 동일.

#### 2-4-2. Forward (Alt+>)

History 목록에서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툴바의 'Forward' 버튼과 동일.

#### 2-4-3. Home

Netscape Navigator의 Default 홈페이지로 지정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툴바의 'Home' 버튼과 동일.

#### 2-4-4. Stop Loading ()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하는 도중에 로드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Dacom Winsock 에서는 'Stop Loading'시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조금 급적이면 페이지 로드가 자연스럽게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툴바의 'Stop' 버튼과 동일.

#### 2-4-5. History 목록

이번에 Netscape Navigator를 이용한 후 접속되었던 사이트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다시 원래의 페이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중간의 사이트들은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 2-5. Bookmarks 메뉴

이것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북마크라는 것은 일종의 책갈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을 보다가 '앗! 이거 좋은 문구 아냐!'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페이지 사이에 책갈피를 하나 끼워 두고 나중에 쉽게 그곳을 찾을수 있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 2-5-1. Add Bookmark (Ctrl+D)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를 북마크 목록에 추가합니다.

#### 2-5-2. View Bookmarks (Ctrl+B)

북마크 목록관리 화면을 보여줍니다. 북마크 화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3. 북마크 목록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북마크 목록의 항목들의 제목이 보여집니다.

### 2-6. Options 메뉴

이 부분은 철저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선은 대강의 내용만 설명하고 차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2-6-1. General Preference

Netscape과 관련된 각종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Appearance, Fonts, Colors, Images, Apps, Helpers, Language 등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 2-6-2. Mail and News Preferences

전자우편과 뉴스와 관련된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Appearance, Composition, Servers, Identity, Organization 등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 2-6-3. Network Preferences

네트워크와 관련된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Cache, Connections, Proxies 등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 2-6-4. Security Preferences

보안에 관련된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General, Site Certificates 등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 2-6-5. Show Toolbar

툴바를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 2-6-6. Show Location

로케이션 필드를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 2-6-7. Show Directory Buttons

디렉토리 버튼을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 2-6-8. Auto Load Images

페이지 로드시에 이미지들을 자동적으로 로드해서 보여줄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 2-6-9. Document Encoding

페이지를 구성하는 문자의 코드체계를 지정합니다.

#### 2-6-10. Save Options

'Option 메뉴'에서 지정된 선택사항을 저장합니다.

### 2-7. Directory 메뉴

#### 2-7-1. Netscape's Home

Netscape사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2-7-2. What's New!

Netscape사에서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디렉토리 버튼 중 'What's New!' 버튼과 동일.

#### 2-7-3. What's Cool!

Netscape사에서 추천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디렉토리 버튼 중 'What's Cool!' 버튼과 동일.

#### 2-7-4. Netscape Galleria

Netscape사에서 만든 Netscape Server를 이용해서 구축된 WWW 사이트들만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2-7-5. Internet Directory

Yahoo 등과 같이 WWW 사이트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디렉토리 버튼 중 'Net Directory' 버튼과 동일.

#### 2-7-6. Internet Search

WWW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nfoSeek, Lycos 등과 같은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디렉토리 버튼 중 'Net Search' 버튼과 동일. (정보검색에 대한 내용은 넷스케이프 강좌가 거의 끝날무렵 자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왜냐구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배워두면 쉬우니까!)

#### 2-7-7. Internet White Pages

인터넷 사용자의 이름 전자우편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NetFind 등과 같은 사이트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2-7-8. About The Internet

인터넷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 2-8. Window 메뉴

#### 2-8-1. Netscape Mail

전자우편관리 화면을 보여줍니다.

#### 2-8-2. Netscape News

뉴스 화면을 보여줍니다. (뉴스 관리도 할수가 있다는 말이죠. 2.0에서는...)

#### 2-8-3. Address Book

전자우편 주소록을 보여줍니다. (홍길동이의 주소가 어떻게 되지?...)

#### 2-8-4. Bookmarks

북마크 관리화면을 보여줍니다.

#### 2-8-5. History

이번에 Netscape Navigator가 실행된 이후에 접속되었던 사이트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 2-8-6. Window 목록

현재 열려있는 Netscape Navigator Window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Windows가 가장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 2-9. Help 메뉴

#### 2-9-1. About Netscape

현재 사용중인 Netscape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 2-9-2. About Plug-ins

Netscape을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Plug-in 소프트웨어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 2-9-3. Registration Information

현재 사용중인 Netscape의 등록 정보를 보여줍니다.

#### 2-9-4. Software

Netscape사의 제품에 관한 소개가 제공됩니다.

#### 2-9-5. Handbook

Netscape 사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디렉토리 버튼 중 'Handbook' 버튼과 동일.

#### 2-9-6. Release Notes

Netscape 2.0 beta 버전에 대한 소개 정보가 표시됩니다.

#### 2-9-7. Frequently Asked Questions

Netscape Navigator에 관한 FAQ가 제공됩니다.

#### 2-9-8. On Security

인터넷상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 2-9-9. How to Give Feedback

Netscape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듣는 곳입니다.

#### 2-9-10. How to Get Support

Netscape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2-9-11. How to Create Web Services

HTML 문서를 작성하고 WWW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네스케이프 활용

## 3. 마우스 100% 활용법

### 3-1. 왼쪽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은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3-1-1. 영역 선택

마우스 포인터가 일반적인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되는 곳에서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영역은 'Edit' 메뉴의 'Copy' 항목을 이용해 서클립보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시작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작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텍스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단 이미지들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요것을 우린 Drag라 하지요.

이때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지정된 영역이 선택 됩니다. 이것을 Drop이라 하지요.

일단 영역이 선택된 후에 그 선택 영역을 확장, 축소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Shift' 키를 누른채로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시작 위치에서 새로 지정된 위치까지가 선택됩니다.

(영역 선택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윈도우의 "파일관리자"부분 에서 마우스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3-1-2. 링크 선택

페이지의 내용중에 밑줄이 있는 문자열 또는 이미지들은 다른 문서로의 링크로 지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 위로 이동시키면 상태표시 영역에 해당하는 링크된 문서의 URL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링크된 문서가 읽히게 됩니다. (링크된 문서가 HTML인 문서가 아니고 GIF 등과 같은 이미지 화일인 경우에는 그 화일만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 3-1-2. 이미지맵 선택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개의 문서로의 링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른 문서와 링크시킨 것 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되는 메뉴를 만든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 눌러진 좌표와 링크된 문서가 읽히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다구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각 시,도가 표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 you가 마우스 포인터를 "광주광역시" 부분에 놓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광주광역시에 관한 Page들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림에 상이한 "링크 지점"들이 제공될때 그것을 ImageMap이라 합니다.)

### 3-2.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작업을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pop-up 창이 나타나며 여기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Back'과 'Forward'만 나타나지만 링크와 이미지에서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 3-2-1. 일반적인 경우

'Back' 과 'Forward' 가 가능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항상 나타납니다. 'Back'과 'Forward' 기능은 툴바에 있는 버튼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집니다. (Page의 아무곳에서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 \* 주의 :

Netscape Navigator 2.0에 새로 추가된 프레임 기능을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으로 나타나는 'Back'과 'Forward'를 이용해야 합니다. 프레임으로 구현된 페이지는 여러개의 영역 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Back' 또는 'Forward' 작업을 해야 할 영역을 지정해야 하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의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심코 툴바의 'Back' 버튼을 누르면 아예 다른 사이트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 3-2-2. 링크에서 클릭된 경우

여기서 click(클릭)이란 "마우스로 누르다"의 영문표기법입니다.

- Open This : 연결된 문서를 읽어들입니다.
- Add Bookmark for this Link : 연결된 문서를 북마크에 추가합니다.
- New Window with this Link : 연결된 문서를 새로운 Netscape 창에서 보여줍니다.
- Save this Link as : 연결된 문서의 내용을 디스크로 저장합니다.
- Copy this Link Location : 연결된 문서의 URL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 3-2-3. 그림(image)에서 클릭된 경우

- View this Image : 지정된 이미지만을 보여줍니다.
- Save this Image as : 지정된 이미지를 디스크로 저장합니다.
- Copy this Image Location : 지정된 이미지의 URL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 Load this Image :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은 경우 (로드 도중에 정지시킨 경우 또는 'Auto Load Image' 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정된 이미지만을 로드합니다.

# 네스케이프 활용

## 4. 일반 환경 설정은 이렇게

화면 상단에 설정항목의 종류가 적혀있는 책갈피 부분을 누르면 해당 하는 설정항목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4-1. Appearance

Netscape Navigator의 화면표시 형태와 관련된 선택사항들을 지정합니다.

#### 4-1-1. Toolbars

Show Toolbar as - 툴바 버튼에 표시되는 내용의 표시방법을 지정합니다.

- Pictures : 그림만 표시합니다.
- Text : 글자로만 표시합니다.
- Pictures and Text : 그림과 글자를 모두 표시합니다.

#### 4-1-2. Startup

Start With - Netscape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주화면에 표시될 Default 홈페이지를 지정합니다.

- Blank Page : 주화면을 비우고 시작합니다 (아무곳에도 접속하지 않습니다).
- Home Page Location : 아래의 입력창에 지정된 곳으로 자동적으로 접속합니다. 처음에는 Netscape사의 홈페이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Hint: 자주 접속하는 곳을 Default 홈페이지로 지정하면 편리합니다. 즉, Home Page Location에 자신이 최초 접속을 원하는 곳을 지정해 놓으면 처음 웹을 시작하면 바로 그 웹문서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연습 삼아서 이곳에 이렇게 써 보세요.

<http://www.yahoo.com/>

그리고 웹을 중단한후 다시 웹에 접속을 해 보세요. 바로 지정한 곳에 접속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 4-1-3. Link Style

Links are - 링크에 밑줄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Link란 다른 웹 문서로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링크가 가능한 글자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가 아닌 손바닥 모양이 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위의 의미는 그런 링크지점이 눈에 잘 띄이도록 밑줄 문자로 해 버리겠다 이거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 Underlined : 선택되면 링크에 밑줄이 나타나고 선택되지 않으면 일반 텍스트와 같이 보여집니다.

Followed Links - 선택한 적이 있는 링크의 유효기간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한 적이 있는 링크는 선택한 적이 없는 링크와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곳을 전에 링크를 해 보았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설정 부분에서 유효기간을 두도록 해서 전에 자주 링크 해본 부분인데

모르고 또 링크하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고 이리 저리 웹 문서를 뒤적 뒤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해 보시면 알겁니다.

- Never Expire : 유효기간없이 계속 링크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 Expire After : 입력창에 지정된 일자가 지난 후에는 링크가 선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 Expire Now : 지금 당장 모든 링크를 선택한 적이 없는 상태로 변경합니다.

### 4-2. Fonts

주화면에서 문서를 표시할 때 이용되는 글자체를 지정합니다.

#### 4-2-1. Fonts and Encodings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씩 해 보세요.

- For the Encoding : 화면에 보여지는 문서에서 사용되는 문자코드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Latin1'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세요. 다른 문자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굉장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 Use the Proportional Font : 일반 내용을 출력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글자체가 표시됩니다. 글자를 읽기 쉽고 멋있는 Times체가 주로 사용됩니다.  
Choose Font : 다른 글자체를 선택합니다.
- Use the Fixed Font : 일반 텍스트 파일을 출력하거나 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글자체가 표시됩니다. 영문자의 모든 글자의 폭이 같은 Courier체가 주로 사용됩니다.  
Choose Font : 다른 글자체를 선택합니다.

### 4-3. Colors

주화면에서 문서를 표시할 때 이용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해 보세요. 전 별로 재미 없던데...

#### 4-3-1. Colors

- Links : 선택한 적이 "없는" 링크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Custom : 선택되면 옆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기본색상 또는 문서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죠?)  
Choose Color : Custom이 선택된 상태에 사용될 색상을 선택합니다.
- Followed Links : 선택한 적이 "있는" 링크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Custom : 선택되면 옆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기본색상 또는 문서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Choose Color : Custom이 선택된 상태에 사용될 색상을 선택합니다.
- Text : 일반 텍스트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Custom : 선택되면 옆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됨. 선택되지 않으면 기본색상 또는 문서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Choose Color : Custom이 선택된 상태에 사용될 색상을 선택합니다.
- Background : 주화면의 배경을 지정합니다.  
Default : 기본색상이 배경색으로 이용됩니다.  
Custom : 선택되면 그 옆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Image File : 선택되면 옆에 지정된 그림을 배경으로 표시합니다. (배경 전용 그림 파일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 Always Use My Colors, Overriving Document : 선택되면 문서에서 지정된 색상대신 항상 사용자가 지정한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 4-4. Images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 4-4-1. Images

- Choosing Colors :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Automatic : 자동적으로 표시방법을 선정합니다.  
Dither : 디더링으로 색상을 표시합니다.  
Substitute Colors : 가장 가까운 색상으로 대치해서 보여줍니다.  
\* Hint : Dither가 Substitute Color보다 느리지만 더욱 좋은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256색상 화면인 경우). 그러니까 256이상으로 맞추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Dither로 해 놓으세요...
- Display Images :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While Loading : 이미지를 읽어들이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After Loading : 이미지를 모두 읽어들이고 다음에 화면에 보여줍니다.  
\* Hint : 전체적인 효율성은 After Loading이 좋지만 While Loading은 이미지를 도중에 볼 수 있으므로 접속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Troy Winsock 접속과 PPP 접속 등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hile Loading로 해 놓으세요.

#### 4-5. Apps

Netscape Navigator에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 4-5-1. Supporting Applications

- Telnet Application : telnet으로 연결되는 사이트로 접속할 때 사용되는 telnet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필요합니다. (Telnet은 인터넷 서비스중 하나로써 원거리(먼거리)의 Server(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 TN3270 Application : IBM 메인프레임에 연결하는 경우에 필요한 TN3270 터미널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필요합니다.
- View Source : 'View Source' 메뉴 항목으로 현재 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볼 때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않은 경우에는 Netscape Navigator 자체의 viewer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넷스케이프에서 잘 보여주니까 설정 안해도 됨)
- Temporary Directory : 임시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요것 꼭 지정해 놓으세요. 제 경우엔 C:\TEMP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더라도 실제로 도스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꼭 디렉토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 4-6. Helpers

Netscape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파일종류들을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지정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넷스케이프를 막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 File Type, Action & Extentions : 현재 Netscape에서 처리 가능한 파일 종류와 각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Create New Type : 새로운 파일 종류 (파일의 확장자와는 다름)를

만들입니다. 'Mine Type'과 'Mine Sub Type'을 지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값은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응용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미리 정해져서 나옵니다. 예를들면 RealAudio에서 사용하는 ra, ram 파일의 경우 Mine Type은 audio, Mine Sub Type은 x-pn-realaudio로 정해져 있습니다.

\* Hint : 대부분의 경우에는 Helper Application의 설치과 정에서 위의 값들이 자동적으로 설정되므로 일반 적인 이용자는 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File Extentions : 현재 선택된 File Type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파일의 확장자들을 지정합니다.
- Action : 현재 선택된 File Type의 파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View in Browser : 선택되면 Netscape Navigator 자체에서 보여줍니다.  
Save to Disk : 선택되면 파일을 PC의 디스크로 저장합니다.  
Unknown: Prompt User : 선택되면 사용자에게 처리 방법을 물어봅니다. 사용자는 View, Save, Launch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unch the Application : 선택되면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 4-7. Language

다국어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타버전에서 이것을 설정했다고 특별한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타니까..

- Accept Language : Netscape Navigator에서 받아들이는 언어를 지정합니다. 그러나 beta 버전에서는 그다지 뚜렷한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Language/Region : 언어와 지역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네스케이프 활용

## 5. 메일/뉴스환경설정

### 5-1. Appearance

메일과 뉴스화면의 모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합니다. 이 부분 고칠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도 무관하니까요.

#### 5-1-1. Message Styles

- **Messages and Articles are shown with** : 편지 또는 기사를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글자체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Fixed Width Font : 모든 글자의 폭이 같은 글자체로 표시합니다.  
Variable Width Font : 글자의 폭이 다른 글자체로 표시합니다.
- **Text beginning with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편지 또는 기사에서 인용문구로 표시되는 부분이 출력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Text Style : 글자체의 형태를 지정합니다. Plain (보통 글자체), Bold (진한 글자체), Italic (이탤릭체), Bold Italic (진한 이탤릭체)  
Text Size : 글자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Plain (보통), Bigger (더 크게), Smaller (더 작게)

### 5-2. Composition

메일 및 기사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두세요.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요.

#### 5-2-1. Mail

- **When Composing Mail and News Messages** : 메일 및 기사 작성시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Send and Post : 메일 및 기사를 보내는 경우의 선택사항을 지정합니다.  
\* Allow 8-bit : 8 bit 문자를 허용함 (한글 가능)  
\* Mime Compliant  
\* Automatically  
\* Quote for Manual Delivery
- **email a copy of outgoing message to** : 메일 및 기사를 보낼때마다 그 복사본을 자동적으로 보내는 전자 우편 주소를 지정합니다.
- **copy outgoing message to** : 메일 및 기사를 보낼때마다 그 복사본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 **Automatically quote original message when replying** : 선택되면 답장을 보낼때 자동적으로 원래의 내용이 인용구로 표시됩니다.

### 5-3. Servers

메일 서버와 뉴스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IP어드레스를 잘 지정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 5-3-1. Mail

- **Outgoing Mail (SMTP) Server** :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메일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164.124.101.2)

- **Incomming Mail (POP) Server** : 메일을 받았는가 검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메일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해 보실분은 Pop User Name까지 지정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 메일을 주고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적인 편지의 확인은 본인만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POP 부분은 자신만이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사용자명을 지정토록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164.124.101.2)
- **Pop User Name** : 메일을 받았는가 검사하는 경우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 **Mail Directory** : 메일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게 맞으니까요.
- **Maximum Message Size** : 처리할 수 있는 메일의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크기를 그대로 두시면 되죠)  
None : 크기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처리합니다.  
Size : 지정된 크기보다 작은 메일만을 처리합니다.
- **Messages are copied form the server to the local disk** : 서버에서 PC로 메일이 복사된 후의 처리방법을 지정합니다.  
Removed from the server : 서버에서 삭제합니다.  
Left on the server : 서버에 그대로 보관합니다.
- **Check for Mail** : 메일을 검사하는 주기를 지정합니다.  
Every : 지정된 기간마다 메일이 왔는가를 검사합니다.  
Never :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 5-3-2. News

- **News (NNTP) Server** : 뉴스(USENE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164.124.101.2)
- **News RC Directory** : 사용자가 구독하는 뉴스 주제 등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그대로 둘것)
- **Get** : 한번에 지정된 수 만큼의 기사만을 읽어들여서 보여줍니다.

### 5-4. Identity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 부분도 틀리지 말고 잘 입력하세요. 전자우편 보낼때 보내는 이의 정보가 함께 송신됩니다. 그렇기에 이 공란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좋습니다.

#### 5-4-1. Tell us about yourself

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고쳐 입력하세요!

- **Your Name** :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Your Email** : 사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합니다.
- **Reply-to Address** : 전자우편의 답장을 받을 주소를 지정합니다.
- **Your Organization** : 소속된 단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Signature File** : 보내지는 모든 전자우편에 추가될 서명 (signature)이 저장된 화일을 지정합니다. 서명은 일반적으로 4-5줄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 이부분 안 적었음)

## 5-5. Organization

메일과 뉴스의 정리방법을 지정합니다.

### 5-5-1. General

- Remember Mail Password : 선택되면 암호를 저장합니다.
- threading : 관련된 메일/기사들을 함께 보여주는 threading 의 적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 Thread Mail Messages : 메일을 threading으로 처리합니다.
- Thread News Messages : 뉴스를 threading으로 처리합니다.

### 5-5-2. Sorting

- Sort Mail by : 메일의 출력 순서를 지정합니다.  
Date (날짜별로 분류), subject (주제별로 분류), Sender (보낸이별로 분류)
- Sort News by : 뉴스의 출력 순서를 지정합니다. Date, subject, Sender

# 네스케이프 활용

## 6. 네트워크환경설정

### 6-1. Cache

접속된 페이지들을 저장하는 캐쉬와 관련된 사항을 설정합니다. 캐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로 접속하게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오는 대신 캐쉬에 저장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 6-1-1. Cache

- Memory Cache : 메모리 캐쉬로 이용될 메모리의 양을 지정합니다.  
(RAM을 이용한 캐쉬를 말함)  
메모리의 양 : 기본설정은 600KB입니다.  
'Clear Memory Cache Now' 버튼 : 메모리 캐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캐쉬의 내용이 지워지면 사이트에 접속할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신의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캐쉬의 양이 많 아지면 WWW 이용이 더 편리해지지만 Netscape Navigator 종료시 캐쉬 정리로 인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Disk Cache : 디스크 캐쉬로 이용될 메모리의 양을 지정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캐쉬를 말함)  
메모리의 양 : 기본설정은 5MB입니다.  
'Clear Disk Cache Now' : 디스크 캐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 Disk Cache Directory : 디스크 캐쉬용으로 이용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접속된 페이지들의 내용이 압축된 형태로 저장될 위치입니다.
- Verify Documents : 캐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의 내용이 최신의 내용인가를 확인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Once per Session : 매번 Netscape Navigator를 실행시 킨 후에 특정한 사이트에 최초로 접속될 때만 최신의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합니다. 두번째로 접속될 때부터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캐쉬에서 내용을 가져옵니다.  
Every Time : 항상 최신의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합니다. 항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므로 캐쉬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Never :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항상 캐쉬로부터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접속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원래의 사이트의 내용이 변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6-2. Connections

메일 및 기사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두세요.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요.

#### 6-2-1. Network Connections

- Number of Connections : 동시에 서버와 접속할 수 있는 연결의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설정은 4입니다.
- Network Buffer Size :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버퍼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설정은 6KB입니다.

### 6-3. Proxies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firewall 시스템으로 보안 관리되는 기업 또는 연구소의 사용자에게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 6-3-1. Proxies

- No Proxies :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설정입니다.
- Manual Proxy Configuration : 사용자가 직접 설정값을 지정합니다.  
View : 프록시 서버의 이름과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해당 네트워크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값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 Automatic Proxy Configuration Configuration Location (URL) : 자동적으로 프록시 관련 사항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가 기록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 네스케이프 활용

## 7. 보안환경설정

### 7-1. General

#### 7-1-1. Do you want coffee with that?

- Disable Java : 선택되면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Java Applet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Java를 이용할 수 없는 버전에서는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Security Alerts : Netscape Navigator에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지정합니다.

Entering a Secure Document Space (Server) : 보안상태의 문서영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Leaving a Secure Document Space (Server) : 보안상태의 문서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Viewing a Document With a Secure/Insecure Mix : 보안 상태와 비보안상태가 혼합된 문서를 보여 주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Submitting a Form Insecurely :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Form을 보안처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버에게 전송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보안을 위해서 신용카드번호와 같이 중요한 정보는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7-2. Site Certificates

인터넷에서 특정한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Site Certificate를 관리합니다.

#### 7-2-1. Site Certificates

- Edit Certificates : 현재의 site certificate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합니다.
- Delete Certificates : 현재의 site certificate를 삭제합니다.

## 8. 북마크 기능

메뉴바의 'Bookmarks' 메뉴의 'Go to Bookmarks...'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지정된 북마크들을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는 북마크관리화면이 나타 납니다. 북마크관리화면은 크게 북마크메뉴바, 북마크목록, 메시지영역의 세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8-1. 북마크 메뉴바

#### 8-1-1. File

- **Open**: 북마크화일을 읽어서 그 내용을 북마크목록 영역에 보여줍니다. 북마크화일은 설정된 북마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HTML 화일을 의미합니다. 북마크화일은 독특한 형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HTML 화일을 읽어들이면 예상치 못한 결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마크 화일은 북마크에서만 읽도록...
- **Import**: 새로운 북마크화일의 내용을 읽어서 현재 사용 중인 북마크화일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합니다. HWP에서의 "끼워넣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 **Save As**: 현재의 북마크화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화일의 형태를 HTML화일, 텍스트 화 일, 실행화일 형태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HTML 화일로 저장됩니다.
- **What's New?**: 모든 북마크 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북마크들만을 대상으로 현재 캐쉬에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이 현재의 사이트의 내용과 같은가를 비교/검사해서 알려줍니다. 관심있는 사이트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그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되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 **Close**: 현재의 북마크 목록을 저장하고 북마크관리창을 닫습니다.

#### 8-1-2. Edit

- **Undo (Ctrl+Z)**: 가장 최근에 수행한 편집작업을 원상 복구시킵니다. 실수로 사이트나 폴더를 삭제한 경우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HWP에서의 "되살리기"와 같습니다.
- **Redo (Ctrl+E)**: 가장 최근에 Undo한 작업을 다시 수행 합니다. "되살리기" 취소 기능입니다.
- **Cut (Ctrl+X)**: 현재 선택된 북마크 항목을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선택된 항목들을 제거합니다. 폴더가 선택된 경우에는 폴더 밑의 모든 항목들도 Cut 됩니다.
- **Copy (Ctrl+C)**: 현재 선택된 북마크 항목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폴더가 선택된 경우에는 폴더 밑의 모든 항목들도 복사됩니다.
- **Paste (Ctrl+V)**: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북마크 항목정보를 현재 선택된 항목의 다음에 복사합니다.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폴더의 첫번째 항목으로 복사됩니다.

- **Delete (Del)**: 선택된 북마크 항목을 제거합니다. 폴더 가 선택된 경우에는 그 폴더의 모든 항목들도 제 거됩니다.
- **Select All**: 모든 북마크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 **Find**: 명칭에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된 북마크 또는 폴 더를 검색합니다. 아무거나 글자를 찾아보세요.
- **Find Again**: 가장 최근에 검색한 문자열을 다시 검색합 니다.

#### 8-1-3. Item

- **Properties**: 현재 선택된 항목의 명칭, URL, 설명 등을 변경합니다. (해당 북마크의 특성을 지정)
- **Go to Bookmark**: 현재 선택된 북마크로 지정된 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 **Sort Bookmark**: 선택된 폴더 밑에 있는 북마크 항목들 또는 직접적으로 선택된 북마크 항목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합니다. 북마크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하나만 선택된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 습니다.
- **Insert Bookmark**: 현재 선택된 항목의 다음에 새로운 북마크 항목을 추가합니다. 북마크의 명칭, URL,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nsert Header**: 현재 선택된 항목의 다음에 새로운 폴 더를 추가합니다. 폴더의 명칭,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nsert Separator**: 현재 선택된 항목의 다음에 분리선 을 추가합니다. Netscape Navigator의 주메뉴의 북마크 목록에서 북마크들을 보기 좋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Make Alias**: 선택된 하나의 북마크의 Alias를 만듭니다. Alias로 만들어진 북마크는 일반적인 Copy/Paste 로 만들어진 북마크와는 달리 Alias들중의 하나의 이름등이 변경되면 다른 모든 Alias들도 동시에 변경됩니다.
- **Set to New Bookmarks Folder**: Netscape Navigator 메뉴바의 'Add Bookmark' 명령으로 새로운 북마크가 추가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이트 들에 연속으로 북마크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용하 면 편리합니다.
- **Set to Bookmark Menu Folder**: Netscape Navigator 메뉴바의 'Bookmarks' 항목의 북마크목록 부분에 나 타날 북마크들이 포함된 폴더를 지정합니다. 북마 크가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 8-2. 목록화면

현재의 북마크 목록을 보여줍니다. 가장 최상위 폴더가 하나있고 그 밑에 폴더 또는 북마크가 추 가될 수 있습니다.

- 북마크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그 북마크가 지정하는 페이지의 내용이 Netscape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가 열리거나 닫히게 됩니다. 폴더의 상태는 폴더를 나타내는 아이콘의 형태로 알 수 있습니다.
- 항목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항목이 선택됩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영역을 한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Ctrl' 키를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관리자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음)
- 선택된 폴더 또는 북마크 항목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 후에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선택된 항목들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합니다.

(Drag & Drop 기능 지원).

- 선택된 북마크 항목을 Drag & Drop으로 Netscape Navigator 의 주화면으로 이동시키면 그 북마크가 지정하는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Drag & Drop 기능 지원).

- Netscape의 주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Drag & Drop으로 북마크관리화면으로 이동시키면 그 링크가 북마크로 추가됩니다.

### 8-3. 메시지영역

북마크 항목이 선택되면 가장 최근에 선택된 항목의 URL을 보여줍니다. 폴더가 선택되면 'Header'라고 표시됩니다.

## 네스케이프 활용

### 9. 실전! 전자우편 보내기

#### 9-1. 메뉴바

##### 9-1-1. File

- **Send Message (Ctrl+H)**: 현재까지 작성된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발송된 전자우편은 Netscape Navigator의 Options메뉴에서 정한 메일 서버를 통해서 발송됩니다. 전자우편이 성공적으로 송신되면 자동적으로 전자우편송신 화면이 닫히게 됩니다.
- **Attach File**: 전자우편에 첨부할 HTML 문서 또는 PC의 파일들을 지정합니다. 아직 베타버전인 관계로 전자우편의 내용영역에만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잘 송신되지만 첨부된 파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송신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Include Original Text**: 현재 Netscape Navigator 주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전자우편의 내용으로 읽어 들입니다. 그리고 인용되었다는 표시인 "을 각 줄의 앞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화면의 페이지의 내용을 전자우편에 넣어 보내고 싶을때 쓰는 기능이죠)
- **Save As**: 전자우편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age Setup**: 프린트를 위해 출력 양식을 지정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int Message(s)**: 전자우편의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lose**: 전자우편송신화면을 닫습니다.

##### 9-1-2. Edit

- **Undo (Ctrl+Z)**: 가장 최근에 수행한 편집작업을 원상 복구시킵니다.
- **Redo (Ctrl+E)**: 가장 최근에 Undo한 작업을 다시 수행 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ut (Ctrl+X)**: 현재 선택된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선택된 내용을 제거합니다.
- **Copy (Ctrl+C)**: 현재 선택된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 **Paste (Ctrl+V)**: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내용을 현재 커서가 있는 곳으로 복사합니다.
- **Paste As Quotation**: 클립보드의 내용은 인용문의 형태로 현재 커서 위치로 복사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Select All**: 모든 내용을 선택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cramble (ROT13) Message**: 전자우편으로 보낼 내용을 암호화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9-1-3. View

- Show All : 모든 전자우편항목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메 뉴들은 해당하는 항목을 전자우편항목 영역에 보 여줄 것인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전자우편을 보 내는 경우와 USENET 뉴스를 보내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이 다릅니다.
- Reply To : 항상 적용됩니다.
- Mail To : 전자우편에만 적용됩니다.
- Mail Cc : 전자우편에만 적용됩니다.
- Post To : USENET 뉴스에만 적용됩니다.
- Followups To : USENET 뉴스에만 적용됩니다.
- Subject : 항상 적용됩니다.
- Attachment : 항상 적용됩니다.

#### 9-1-4. Window

- Address Book : 북마크관리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 자우편을 보낼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록 관리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주소록이겠죠.)
- New Netscape Browser : 새로운 Browser 화면을 생성합니다.
- Netscape Mail : 전자우편관리화면을 생성합니다.
- Netscape News : 뉴스관리화면을 생성합니다.
- Bookmarks : 북마크관리화면을 생성합니다.
- History : History 표시화면을 생성합니다.

#### 8-2. 툴바

자주 사용되는 메뉴의 기능을 이용하기 쉽도록 버튼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 Send : 현재 지정된 곳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File 메뉴의 'Send Message' 항목과 동일합니다.
- Later : 현재의 내용을 화일로 저장합니다. File 메뉴의 'Save As'와 동일하며 현재 버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Quote : Netscape Navigator 주화면의 내용을 전자우편의 내용으로 읽어들이입니다. File메뉴의 'Include Origianl Text'와 동일합니다.
- Attach : WWW 문서 또는 화일을 전자우편에 첨부합니다. File메뉴의 'Attach File'과 동일합니다.
- Address : 전자우편을 보낼 주소를 선택합니. 주소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들이 나타납니다.
- Stop : 메일 서버와의 연결을 중단시킵니다.

#### 8-3. 전자우편항목

전자우편을 보내는 곳, 제목 등과 같은 항목 을 지정하는 영역입니다. 메뉴바의 View메뉴에서 정한 항목만이 보여집니다.

#### 8-3. 전자우편내용

전자우편으로 보내질 내용을 편집하는 영역입니다.

## 검색엔진

### 1. 검색엔진 이전의 도구들과 등장 배경

#### 1-1. WWW이전의 정보검색 Tool(도구)

Archie, Veronica, Whois, WAIS, NetFind 등

1. 아치(Archie) : 인터넷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 색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의 Anonymous FTP 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렉토리 및 파일명을 색인화하여 사용자가 특정 주제로 파일의 위치 를 찾을때 사용한다.
2. 베로니카(Veronica) : 특정한 주제어를 가지고 gopher의 메뉴를 검색키 위한 서비스.
3. 후이즈(Whois) : 인터넷 사용자나 기관의 이름을 통해 그 주소를 검색키 위한 서비스.
4. NetFind : 3번의 Whois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5. 웨이즈(WAIS) : 검색어를 통해 색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며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 1-2. 이런 문자 방식 위주 서비스의 단점

1. 아치(Archie)는 Anonymous FTP에 ls -la 파일이 있어야만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다. (ls명령어는 도스의 dir과 같은 기능의 유닉스(Unix) 명령어 이다. 또한 dir/w/p와 같은 식의 /w나 /p의 옵션(option)처럼 -la도 ls명령어의 옵션이다. 아무튼 이런식(ls -la)으로 명령을 주면 도스에서 그냥 dir한것과 같이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이 화면에 나온다. 아치(Archie)는 그때 나오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2. Whois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놓아야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천리안에서 자기정보를 비공개로 해 놓지 않아야 PF명령어로 그 사람의 아이디(ID)를 이용,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것과 같은 이치.)
3. WAIS, 베로니카 : 서비스하는 서버(Server)의 수가 적다. (서비스하는 컴퓨터의 수가 적기에 접속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잘 접속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튼 보편적인 서비스는 아니다.)
4. 이들 각각의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데 따르는 복잡함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점.

#### 1-3. 검색엔진의 등장 배경

WWW 등장 이후,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자신만의 홈페이지(HomePage)에 올려 놓음으로써, 정보의 제공단위가 기관에 서 개인으로 작아졌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자료들로 인해 더욱더 검색량은 거대해져 갔다. 이런 대량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엔진 (Search Engine)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각 URL(각 홈페이지들의 고유한 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이전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Robot Agency"를 사용한다.

※ Robot Agency가 뭐냐구요?

웹 서버(Server, 정보제공자)를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 서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을 위해... 예를 들자면, 저희 과(전산통계) 학생회에서 과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각 교수실과 연구실, 그리고 전체 학년을 돌며 기증도서를 모았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회는 "Robot Agency"의 역할을 한 것이고, 각 교수실과 연구실, 그리고 전체 학년은 정보 제공자 즉 웹 서버인 것입니다.

## 검색엔진

### 2.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종류

#### 2-1. 주제별 검색 엔진

특정 주제별로 각 Page들을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서치엔진.

(예) Yahoo(야후), Lycos, WWW Virtual Library, Einet Galaxy 등

이 검색 엔진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후(Yahoo)입니다. 각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를 마우스로 클릭(누르기)하면 (이 동작을 "링크(Link)"라 하기 때문에 이하 이 용어를 사용 하겠음.) 그 분야의 세부 항목이 주욱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사용자가 계속 링크해서 들어가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한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세요.

예를 들자면, 스포츠 -- 구기종목 -- 축구 -- 월드컵 -- 한국 2002년 월드컵 ... 뒤,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이 주제별 검색 엔진의 장,단점을 이미 이야기 했지만 아래 다시 언급하면...

[장점]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것의 대 분류 정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단점]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정보만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요즘 이런 주제별 검색 엔진들의 추세는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단어별 검색 엔진" 유형까지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색어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여 직접 원하는 정보로 접근하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후의 홈페이지에 들어 서면, 화면 윗 부분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문서상자가 있고 하단엔 주제 별로 분류된 항목의 목록이 보이는 것이죠. (한번도 이 Yahoo 화면을 안 보신 분은 아래 야후의 URL을 적어 놓았으니 넷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하 이것을 말하는군'이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이런 "주제별 검색 엔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검색 엔진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 1. 야후(Yahoo): URL -- <http://www.yahoo.com/>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빗 펠로와 제리양이 만든것으로 1995년 7월 현재 65641개의 entry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올해 96년엔 더 많이 늘었겠조? 약 십만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① 연산자 : AND, OR 등을 지원.

(예) "Music Lion King"를 키워드로 갖는 검색어에서 'And'옵션을 주면 "노래 라이온킹"의 정보가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고, 동 일한 키워드에서 'Or'옵션을 주면 "노래" 또는 "사자" 또는 "왕" 이란 세가지 정보를 모두 찾게 되는 것입니다.

② 출력(검색후 결과는?) : 해당 검색어에 적합한 문헌 수, 주제별

URL(주소), URL(주소), 즉 그 해당 위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

③ 특징 : 키(Key;검색어)의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예) "Music Lion King"와 "Lion King Music"의 두가지를 놓고 검색시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

2. Einet Galaxy : URL -- <http://www.einet.net>

15만개 이상의 HyperText Link를 가지고 있다. 즉 대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검색엔진.

3. WWW Vitual Library : URL -- <http://www.w3.org/hypertext/DataSources/bySubject/WWW/>의 시조인 CERN 연구소에서 시작.

① 특징 : 알파벳 순서에 의한 분류.

(예) A/B/C/D/ ... /X/Y/Z 식으로 분류가 됨. 사전에 생각하면 쉽겠죠?

4. Lycos는 주제별 검색엔진의 특성도 갖지만 "단어별 검색 엔진"의 성 격을 더 띄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검색엔진이 대표적인 주제별 검색엔진입니다. 각 검색 엔진의 이름 옆에 URL(해당 검색엔진의 주소)를 적어 놓았으니 웹 브라우저(넷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각 검색엔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중 대표적인 검색엔진 YAHOO(야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엔진의 홈페이지만 보시고 한번씩 이것저것 링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2-2. 단어별 검색 엔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URL(각 홈페이지가 갖는 고유 주소)을 저장하고 특정 키워드(주제어 또는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예) Lycos, Web Crawler, Harvest WWW Broker, WWW(World Wide Web Worm) 등.

이 검색엔진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방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도서관 정도 생각하면 됨)에 모든 홈페이지들의 URL(각 홈페이지의 유일한 주소들)을 저장하고 특정 키워드(Keyword;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입니다. 야후(Yahoo)에 들어가 본 사람 이라면, 그 홈페이지에 글자를 입력할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문서상 자'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상자안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을 하면 "I"자 모양의 커서가 깜박거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에서 본인이 찾기를 원하는 단어의 몇 가지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Search]라는 버튼을 하면 검색을 시작하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Music Lion King"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세가지 단 어를 모두 만족하는 검색결과값을 보여줄 것입니다.

(야후에서 해보세요. 야후의 URL은 "http://www.yahoo.com"입니다.)

[장점] 간단한 키워드(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단점] 색인(Index; 책 뒤에 있는 사전식 단어찾기 분류목록을 색인이 라 함)이 정확하지 않은 검색 엔진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해당 검색엔진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가 중요한 것임.

[특징] 검색결과에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Weight score)를 준다. 가중 치란 해당 검색 결과의 컴퓨터가 주는 신뢰점수이다. 높을수록 정확한 검색결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 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1. Lycos(라이코스) : URL -- <http://lycos.cs.cmu.edu/>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크 L.몰딘이 개발한 것. 1995 GNN Best of the Net에 노미네이트 됨.

① 특징 :

. 440만개 이상의 Web Page를 색인화(Indexing) 해놓고 있음.

. Indexing 기술을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서버(Server; 웹 정도 제공자) 운영자라면 자신의 Server에 시험이 가능하다.

. 적어도 3차 이상의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 특수문자 : (-)는 NOT, (.)은 Exact Match, (\$)는 접두어 기 능.

. 현재(95년 7월경) 특허 출원중. (지금은 아마도 특허가 인정되 어 있을겁니다.)

② 입력 :

. 쿼리(Query; 질의) -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

. Max-hits : 최대 결과 레코드 수(사용자가 기대하는 총 결과의 수).

. Min-terms : 최소 팀의 개수(사용자가 기대하는 한 화면에 보 일 결과 수).

. Terse output(간결한 출력) : excerpt(인용구; 해당 결과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를 볼 것인지를 선택.

③ 출력 : 가중치(해당 결과의 신뢰 점수), 인덱싱(Indexing), 시 기, 타이틀(제목), 키(Key), Excerpt 등.

2. Web Crawler : URL -- <http://webcrawler.com/>

워싱턴 대학의 브라이언 핑커트 이 개발

① 특징 : 15만개 이상의 문서를 색인화(Indexing)해 놓았고, IBM PC 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AND 연산등을 지원한다.

② 출력 : 가중치(Score), URL(해당 검색 결과가 있는 곳의 주소)

3. Harvest WWW Broker : URL -- <http://www.town.hall.org/brokers/www-homepages/> 콜로라도 대학에서 개발함.

① 특징 : 50,000 이상의 개체(Object; 모든 종류의 자료들)를 색인 화(Indexing), 검색엔진의 소스(Source)를 공개해 놓았음, 부울린 (Boolean) model 지원(And, Or, Not등의 논리식), 철자 오류 지 원.

② 결과 : URL, 호스트명(서비스제공하는 곳의 이름), 경로, 해당 검색결과 내용의 요약 등.

4. World Wide Web Worm : URL --

<http://www.cs.colorado.edu/home/mobrayan/www.html>

콜로라도 대학의 올리버 맥브라이언이 개발

Best of the Web '94의 Best Navigational Aid 수상.

① 특징 :

. 3백만개의 URL을 제공.

.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제공(Title, URL 등으로) 한다.

. AND, OR 사용 가능.

## 2-3. 메타(Meta) 검색 엔진

많은 검색엔진을 한데 모아 검색하기 편리하게 만든 툴 (Tool: 도구).

(예) W3 Search Engine, CUSI 등.

### [장점]

- 각각의 검색엔진을 옮기면서 질의(검색어를 주고 묻는 작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조작환경(interface)으로 각각의 검색엔진을 검색한다.
- 웹 자원뿐만 아니라 Software, People, Publications, News/FAQs, Documentation 등의 환경까지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웹문서(HTML 문서)만을 검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뉴스그룹 또는 FAQ같은 문서까지도 찾아주는 아주 넓은 검색영역을 갖는 것이 장점이다.
- 각종 검색 엔진과 다른 문서나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1. N3 Search Engine : URL -- <http://cuiwww.unige.ch/meta-index.html>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개발

2. CUSI : URL -- <http://pubweb.nexor.co.uk/public/cusi/cusi.html>  
영국의 통신 software 회사인 넷서(Nexor)의 마티니코스터가 개발  
□ 특징 : 소스(프로그램의 source; 원본)가 공개되어 자신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다.

## 2-4. 통합 검색 엔진

한번의 검색으로 여러 검색 엔진을 동시에 검색, 대부분 멀티쓰레드 (MultThread) 기법을 사용하므로 한번의 검색시간으로 여러곳을 검색할 수 있다.

(예) Net Search, Savvy Search, SPIDER 등.

1. 멀티쓰레드 질의 Page : URL -- <http://www.sun.fi/mtq/mtquery.html>  
핀란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1995년 7월 1일부터는 핀란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Net Search : URL -- <http://wanda.pond.com/cortex/cgi-bin/netsearch>  
특징 : 여러 개의 검색엔진을 검색하여 가중치(Score; 검색 신뢰 점수)를 다시 부여한다.
3. Savvy Search : URL -- <http://www.cs.colostate.edu/~dreiling/smartform.html>  
단점 : 각 검색엔진의 가중치(Score)가 표시되지 않는다.
4. SPIDER : URL -- <http://flower.comeng.chungnam.ac.kr/cgi-bin/bluefrog/SPIDER>  
국내에서 개발한 검색 엔진

# 검색엔진

## 3. 검색엔진을 이용한 정보검색 요령 6가지

3-1. 기본적으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검색엔진에 대한 질의 방법에 대한 문서(설명서)를 반드시 읽을 것!

검색엔진은 정보검색의 간단한 패턴매칭(Pattern Matching)방법에서 부터 부울린 모델(Boolean Model), 확률 모델, 벡터 스페이스(Vector Space) 모델 등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모델이 등장합니다. 싱글 텀(Single Term; 한 단어의 검색어)과 같은 간단한 질의보다는 AND, OR, NOT 등을 사용한 구체적인, 논리적인 질의를 해야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모델은 전산과학(Computer Science)의 자료구조(Data Structure)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색(Search)이란 부분을 보면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서점에 서 자료구조에 관한 책을 보시면 됩니다.

3-2. 가중치(Weight 또는 Score; 해당 결과물에 대한 신뢰 점수)를 믿지 말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서 그 가중치가 정확 하다고는 맹신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 가는 방향(즉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3-3. 적절한 검색엔진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검색 이외의 특정 부문(예: 논문검색, 특허 정도 검색 등)의 검색은 그 나름대로의 검색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용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검색엔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Know-Where가 중요하더라도 Know-How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연습으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 바로 정보검색으로 성공하는 첩경인 것이죠.

3-4. 좋은 키워드(Keyword; 검색어)의 선택이 중요!

짧은 키워드는 피하고, 키워드는 구체적이고 길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유명사는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 것으로 국한시켜서 검색하니깐요... 구체적이잖아요)

3-5. 모든 것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970년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 습니다. 왜냐구요? 웹의 역사는 1980년 전후 거든요. 그러니 웹페이지가 만들어 진 것들 기준으로 보면 글썄요, 1970년 이전의 정보를 웹 에서 구하기란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존의 인터넷 문자 서비스는 가능하겠죠. FTP만을 검색하는 Archie(아치)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Gopher의 문서들을 검색하는 Veronica(베로니카) 등을 이용한다던가 그 이전의 문서라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웹의 한계가 아닐까 하군요. 하지만 요즘 검색엔진은 웹문서 만을 검색대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이외에 뉴스 (UseNet)까지도 검색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천하 막강의 검색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3-6. WWW이 정보검색의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

이건 위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중복되는군요. 각종 BBS, 뉴스 그룹, 메일링 리스트의 사용외에 가장 좋은 것이 그 정보에 대하여 알만한 사람을 찾아 내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E-mail)를 보내 질문한다면 기냥! 아닐까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인 사람이 되 라는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않습니다. 저도 얼마전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분과 두어차례 편지 교환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아주 귀중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했었죠. 정말 유익한 만 남이었습니다.

## 검 색 엔 진

### 4. 각종 검색엔진 목록 및 URL

#### 4-1. 주제별 검색 엔진

: 이것은 훑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검색합니다.

- Galaxy -- <http://galaxy.einet.net/>
- The Global On-Line Directory -- <http://www.gold.net/gold/>
- McKinley Groups' Magellan -- <http://www.mckinley.com/>
- NetCenter -- <http://www.netcenter.com/netcentr/what-new/whats-new.html>
- PointCommunication -- <http://www.pointcom.com/>
- Pointers to Pointers -- <http://www.homecom.com/global/pointers.html>
- Starting Point -- <http://www.stpt.com/util/submit.html>
- Web Voyager -- <http://webpace.com/~wvoyage/>
- The whole internet catalog -- <http://nearnet.gnn.com/wic/index.html>
- Yahoo -- <http://www.yahoo.com/>
- Yellow Pages.com -- <http://theyellowpages.com/feedback.html>

#### 4-2. Index를 검색해주는 단어별 검색엔진

: 이것은 자세히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 Aliweb -- <http://web.nexor.co.uk/public/aliweb/aliweb.html>
- AltaVista -- <http://www.altavista.com/>
- CUI's W3 카달로그 -- <http://culwww.unige.ch/w3catalog/>
- DejaNews -- <http://www.dejanews.com/>
- Excite NetSearch -- <http://www.excite.com/>
- InfoSeek -- <http://www.infoseek.com/>
- Lycos -- <http://www.lycos.com/>
- Nikos -- <http://www.ms.com/cgi-bin/hikos/>
- Open Text Index -- <http://www.opentext.com:8080/>
- WebCrawler -- <http://webcrawler.com/>
- WWW Worm -- <http://www.cs.colorado/home/mcbryan/wwwwww.html>

#### 4-3. 한번에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메타 검색 엔진

: 네트워크(Network)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이 직접 돌아다니며 수집하지 않으므로 색인화된 데이터베이스(Indexed Database)를 가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죠.

- All In-One Search Page -- <http://www.albany.net/~wcross/all1srch.html>
- CUSI -- <http://web.nexor.co.uk/susi/cusi.html>
- Fun City Web Search -- <http://www.funcity.com/search.html>
- HyperNews -- <http://union.ncsa.uiuc.edu/HyperNews/get/www/searching.html>

- InfoMarket -- <http://www.informkt.ibm.com/>
- Link Search -- <http://where.com/ls/LinkSearch.html>
- MetaCrawler -- <http://www.cs.whashington.edu:8080/>
- SavvySearch -- <http://www.cs.colostate.edu/~drelling/smartform.html>
- W3 서치엔진 -- <http://cuiwww.unige.ch/meta-index.html>
- Web-Search -- <http://www.biddeford.com:80/~soaring/>
- Searchers -- <http://gagme.wva.com/~boba/search.html>

이상 굉장히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검색엔진들 바로 야후(Yahoo), 웹크롤러(WebCrawler), 라이코스(Lycos), 알타비스타(AltaVista) 그리고 메타엔진(MetaEngine)의 대명사 새비서치(SavvySearch)를 중심으로 실습을 하고 그 각각의 엔진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가며 아주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자료는,

1. 가자 Web의 세계로 / 정보시대 발행
2. 월간 PC Line의 월별 특집 기사  
(1996년 3월의 인터넷 특집 기사를 특히 많이 참조했습니다.)
3. 월간 Internet의 월별 기사  
(월별로 정보검색엔진에 관해 연재되었던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4. 한국정보학회에서 매 분기별 학술(논문)발표했던 자료를 모아놓은 학술지 중 인터넷 검색엔진에 관한 학술발표자료(특히 1995년 가을부터 발표된)를 참조했습니다.

## 검색엔진

### 5. 야후(Yahoo)

#### 5-1. 디렉토리(Directory) 서버(Server)의 대부 "야후(Yahoo)"의 소개

\* URL -- <http://www.yahoo.com/>

야후란 무슨 뜻일까요? (Yahoo)는 Yet Another Hierarchical Official Oracle이란 공식 명칭의 약자입니다.

1994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비드 필로(David Filo)와 제리 영(Jerry Young)은 서로가 모아 두었던 수백개의 핫(Hot) 리스트 사이트(Site; 인터넷 주소)를 비교해 보고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의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로 하고, 야후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초기의 야후 URL은 'http://akebono.stanford.edu/yahoo'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학교의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넷스케이프를 만든 회사에서 1995년에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버(Server)와 네트워크 라인(Network Line)을 제공해 현재의 야후(Yahoo)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 [특징]

- 체계적인 Link 정보의 제공.
- 인터넷에서 야후가 차지하는 엄청난 역사적 위치.
- 10만개 이상의 사이트(Site)를 14가지 주제(Topic)로 계층적 정리를 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내에는 인터넷 자원에 대한 Link와 간단한 소개글이 들어 있다.
- 초기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보관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검색도 제공 하기 때문에 직접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키워드(Keyword; 이 말이 "검색어"를 의미하는 것 이제는 알지요?) 입력시 'AND'나 'OR' 같은 연산자 사용이 가능.

#### [장점]

최고의 신뢰성.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는 하루 간격으로 변화여부를 체크해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에 틀린 링크(link)가 거의 없다는 점. 즉, 야후에서 찾은 정보의 최신의, 정확한 정보임을 의미합니다.

#### [단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이점은 모든 주제별 검색엔진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에서 언급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이죠. 또 이런 이유때문에

자기가 만든 홈페이지를 야후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야후에 개인 홈페이지 등록 작업을 꼭 해 줘야 합니다.

## 5-2. 야후(Yahoo)의 화면 구성

여러분이 위의 URL로 접속시 최초 보게되는 야후의 홈페이지의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1. 화면 맨 위의 그림들과 함께 있는 작은 글씨들의 구성.

이런 메뉴 방식을 이미지맵(Image Map)이라 합니다. 각각의 그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각각의 그림을 클릭하면 무언가로 링크(Link)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각각의 이미지맵의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New: 최신의 웹 사이트를 소개하는 곳.
- Cool: 좀 색다르고 기가막힌 웹 사이트만을 소개하는 곳.
- Random: 임의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곳. (심심할때 한번씩 눌러보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연결해주는 곳입니다.)
- HeadLines: 야후가 제공하는 매일의 최신 기사의 각 분야별 주요 기사를 소개하는 곳.
- YahooInfo: 야후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곳. (특히 여기에서 Yahoo!Help와 FAQ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 ADD URL: 홈페이지를 야후에 등록하거나 갱신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곳.
- Write us: 이 메뉴는 홈페이지에선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우 보일 때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야후에 의문사항들을 써서 보내는 곳을 제공합니다. 질문같은것 말이죠.

### 2. 파란색의 밑줄 문자들이 이미지맵 바로 밑에 있죠.

- Web Launch: 여기를 링크하면, 웹에서 제공되는 사업적으로 사용되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장사를 시작한 웹사이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 같더군요.
- Click here for breaking technology news first: 말 그대로 테크 니컬한 뉴스나 소식 그리고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별거 없 는것도 같고...
- Yahoo Quick Access: 본인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때 야후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할 목적으로 연결하고 싶을때 이곳을 하면 야후에서 친절하게 그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 3. 직사각형의 검색어 입력상자와 우측에 보이는 버튼과 옆에 있는 링크 "options"

여기 검색어 입력상자에 클릭을 하면 마우스 커서가 "I"자가 되며 깜박거리죠? 그때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더 세밀한 검색을 하고 싶다면 서치버튼 옆에 있는 Options에 링크를 해 보세요. 또 다른 직사각형의 검색어 입력상자와 서치버튼이 보이죠?

그 아래 있는 항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Search: Yahoo, Usenet, Email address

자 여기에서 본인이 검색할 대상이 있음직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야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색할 사람은 Yahoo의 옵션단추에 까만색이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즈넷뉴스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Usenet에 선택,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찾고 싶은 사람들은 Email address를 선택하면 됩니다.

### • At least one of the keys(OR)과 All keys (AND)

이것은 여러분이 검색상자에 입력할 단어를 어떤식으로 연산시킬까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usic Lion King의 검색어 세단어에 OR를 선택했을 경우는 음악 따로 사자 따로 그리고 왕이란 단어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검색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또 다른 예로, Music Lion King의 검색어 세단어에 AND를 선택했다면 음악중 라이온킹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을 찾아 줍니다. 그러면 아마도 영화 라이온킹의 주제곡에 대한 웹사이트 목록이 결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좋죠?

### • Substrings와 Complete words

만약, 검색어를 "World"만을 했고 Substrings 옵션을 선택했다면 "WorldCup"을 비롯한 월드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이 검색됩니다. 말 그대로 서브스트링이죠. 그렇지 않고 "World"에 Complete words 옵션을 선택했다면 꼭 그 단어만을 검색합니다.

### • Display [25] matches per page

이것에서 25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의 의미는 문장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한 페이지에 보일 결과의 갯수를 지정합니다. 많이 지정하면 너무 긴 문장의 웹문서를 받느라 시간도 걸리고 수평이동줄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죠, 본인 이 원하는 적당한 값을 주면 됩니다.

그 화면에서 그대로 아래를 보시면, other search Engines라는 글귀와 함께 아래에,

Open Text | AltaVista | Lycos | WebCrawler | DejaNews | More.. 라는 이 검색엔진의 목록은 여러분의 검색어로 검색한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동일한 검색어로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해 검색하고 싶을때 할수 있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야후가 여러분의 검색어로 (만약 여러분이 알타비스타를 선택했다면) 알타비스타에 질의를 보내어 검색 결과를 비워줍니다.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 4. 그리고는 야후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인 14가지의 큰 항목들과 소 항목들이 보일 겁니다.

## 6. 웹크롤러(WebCrawler)

### 6-1. 로봇(Robot)을 이용한 탐색 WebCrawler의 소개

\* URL -- <http://webcrawler.com/>

1. 1994년 초 워싱턴 대학의 브라이언 핑커톤이란 사람이 486 개인용 컴퓨터를 서버(Server, 정보제공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 검색 및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검색엔진 방법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4월경에 시작했는데) 6개월만에 100만번째 이용자를 맞이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2. AOL(American On-Line;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사가 스폰서로 나서면서 현재의 틀을 갖추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검색엔진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록이 없어도 본인의 홈페이지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야후같은 류의 검색엔진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검색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홈페이지 등록을 해야 했구요.
4. 하지만 긴(?)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기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옵션.
5. All(And와 동일)과 Any(Or와 동일) 연산자 사용 가능.

### 6-2. "로봇(Robot)"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세계 각지에 있는 수백만개의 홈페이지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일을 하는가?

로봇은 흔히 WWW Robot = Wanderers = Spiders 라고들 합니다. 이것 이 스스로 웹(Web문서)을 탐색해 나가고, 그 탐색해 나가면서 모아놓은 정보를 자체적으로 색인화(Index화; 자료정리) 시키는 동작원리 때문에 로봇(Robot)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로봇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 1. [동작원리]:

- \* 어딘가 로봇이 지나가는 곳에 링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로봇이 그곳으로 들어와 정보를 수집해 나간다.
  - \* 제대로 된 링크(Link)가 없다면 로봇이 탐색해야할 곳을 시작점 으로 지정해 두면 그곳에서부터 인덱스(Index; 색인화)의 수집이 이루어 진다.
  - \* 홈페이지 중 특히 'What's new?'와 같이 새로운 곳만 모아놓은 곳을 집중 탐색하며, 새 링크가 등장하였으면 자동 방문해서 자신의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방식 등을 취하기도 한다.
2. "검색엔진의 성능은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검색엔진과 로봇이란 프로그램들을 별수 없는 관계입니다. 검색엔진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모으는 일) 하는 것이 바로 로봇이구요. 이해 되세요?

#### 3. [단 점]:

이렇게 스스로 네트워크(Network)를 돌아다니는 Robot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는 엄청난 네트워크 트래픽(Traffic; 교통체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늦어지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4. [해결 방안]:

"Robot 배제(exclusion) 표준"을 따르는 로봇은 위와 같은 단점을 해결합니다. 알타비스타라는 검색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스쿠터" 라는 로봇이 이러한 예입니다.

### 6-3. 검색상자에 쓸 수 있는 명령어용 단어가 모두 7가지

#### 1. AND :

예, music AND pocahontas  
music이고 포카혼타스(pocahontas)인 것 검색. 둘다 꼭 포함.

#### 2. OR :

예, music OR pocahontas  
music이나 포카혼타스 어느것이나 들어있어도 무관.

#### 3. NOT :

예, science NOT fiction  
꼭 fiction이 포함되지 않는 science 만 검색.

#### 4. NEAR :

예, animal NEAR/25 dog  
단어 animal과 dog사이에 25개의 단어가 포함된 모양을 검색. 두 단어의 순서와는 무관하지만 아무튼 그 단어 사이에 25개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형태만 검색한다.

animal NEAR dog 라는 식으로 범위를 생략하면 두 단어가 가까운(near) 거리를 두고 있는 형태만 검색한다

#### 5. ADJ :

예, global ADJ warning  
단어 global 뒤에 곧장 warning가 나오는 형태만 검색.

#### 6. "...":

예, "all you can eat"  
all you can eat라는 구(phrase)가 포함된 형태만 검색.

#### 7. (...):

예, Homer NOT (simpson OR Alaska)  
Homer이란 단어를 찾고 싶지만, 단 simpson이나 Alaska란 단어가 빠진 형태만 검색한다. 그러니까 괄호는 좀 복잡한 논리식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한다.

# 검색엔진

## 7. 라이코스(Lycos)와 실전문제

빠른 서버(Server)가 특징인 라이코스(Lycos) : URL -- <http://www.lycos.com/>

### 7-1. 특징

1.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다.
  - 약 1,075만개 정도의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함. (하지만 요즘 등장한 알타비스타 보다는 열세에 있는게 사실.)
  - 웹(Web) 뿐만 아니라, 고퍼(Gopher, 일종의 BBS를 생각하면 됨)나 FTP(파일을 전송받기위한 인터넷 서비스)의 문서나 파일까지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
  - 각 홈페이지의 제목(Title), 머리말(Heading, 소개글) 뿐만 아니라 각 파일중에서 처음 20줄과 중요한 단어 100개 정도까지 담고 있으며, 검색을 위해 500만개 정도의 큰 카달로그(목록집) 항목(item) 과 50만개 정도의 작은 카달로그도 제공하고 있다. 아무튼 검색결과로 주소(URL) 정도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방대한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2. 여러 대의 분산 System을 이용한 빠른 처리.
3. 우수한 출력 결과.
 

검색어에 따라 그것이 등장하는 빈도수나 중요도 등을 자체 계산해서 일정한 점수를 매긴 다음, 높은 순서로 표시한다. (즉 위에 나오는 결과일수록 확실한 것!) 검색어가 제목에 있는 경우 점수가 높다든지, 나오는 빈도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수 (Weight 또는 Score)를 주고 점수에 따른 순서대로 출력해 준다. 1.000이면 최고의 결과이고 그 이하의 점수들(예, 0.987, 0.876, 0.456...)이 할당된 결과들로 구성되는데, 상위 10위의 리스트(list) 내에 있는 결과라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로도 통한다. 하지만 그 점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 또한 없다는 사실을 주지할것!
4. And,Or 연산자를 지원하며 확장 옵션(Enhanced option)도 지원한다.
5. 수치 통계값으로 확인
 

어느 만큼 검색어가 많이 등장했는지, 즉 각각의 검색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웹 페이지가 결과로 나왔는지도 표시된다.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6. 스펠링이 정확하지 않아도 비슷한 단어의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메타문자로서 "\$"을 이용하면 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음.)
7. 항상 최신의 자료를 유지하고 있다.
 

1주일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며 1주일 마다 약 30만개의 홈 페이지가 추가된다.

### 7-2. 사용법 및 화면 구성에 관하여

#### 1. 메타문자의 사용.

검색을 하는 검색 상자에 입력할 수 있는 세가지 메타문자가 있습니다.

- (-): 검색어중 꼭 이 단어만은 빠져야 할때 사용.  
예를 들어, "bank"를 검색하고 싶지만 꼭 "river"란 단어만은 찾 고자 하는 정보에서 빠졌으면 할때 검색상자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 bank -river
- (.): 정확하게 그 단어만을 검색하고 싶을때 사용.  
예를 들어, "Bank"만을 검색하고 싶을때 (즉 banking이나 banker 이라는 식의 단어는 찾고 싶지 않을때) = bank.
- (\$): 스펠링을 모를때 사용.  
예를 들어, gard로 시작하는 단어인줄만 알때 = gard\$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garden 또는 gardenias 등의 여러가지로 검색을 알아서 해 준다.

#### 2. 라이코스의 화면 구성.

- 검색상자 바로 위에 있는 이미지 맵(Image map; 그림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식의 링크(Link; 연결점)를 제공 하는 방법)에서 우측 네가지 join now, info, add site, new2site 등에 대해 설명하자면,  
join now -- 라이코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을때, (광고를 한다거나.)  
info -- 라이코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도움 정보들  
add site -- 라이코스에서 검색 가능토록 새로운 사이트(site)를 추가하고 싶을때 이용.  
new2site -- 라이코스를 통해 소개하는 새로운 사업(홈페이지)의 광고 소개.
- 아래 검색 상자의 밑에 세가지 옵션 단추가 있다. 그것은 검색할 영역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Lycos에서만 검색할것인지, A2Z 에서 검색할것인지 아니면 Point review에서 검색할것인지 등. 그 럼 A2Z와 Point review라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설명해 드립니다.  
A2Z --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이트(site)만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라이코스내의 디렉토리. URL : <http://a2z.lycos.com/>  
Point -- 인터넷 상위(Top) 5%에 속하는 사이트(Site) 만을 대상으로 모아놓은 디렉토리. URL : <http://www.pointcom.com/>  
이 둘은 모두 라이코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검색영역을 세분화 시켜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 그리고 Enhanced Option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옵션이 보일 겁니다. 네가지가 보이죠? Search Options와 Display Options의 각 두가지들.  
match all terms (AND): 검색어를 모두 만족하는 결과만 가지고 검색  
match any terms (OR): 검색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됨. (기본 값)  
match 2 terms, match 3 terms, ...  
loose match: 가장 어설픔게 일치해도 됨을 의미 (기본값)  
fair match

good match  
close match

strong match :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일치인 경우만을 인정하겠 다는  
것을 의미

10 results per pages : 한 페이지당 10개의 결과만 확인하겠다. (기본값)

20 results per pages, 30 ..., 40 ...

summary results : 대중의 결과만 출력하라. 아주 간략하게... (주소와  
제목등만 소개)

standard results : 제목과 주소 그리고 간략한 내용만 출력할 것!  
(기본값)

detailed results : 각 결과의 상세한 내용까지 출력하라!

### 7-3. 도움말 사용하기

1. Search language help와 Formless Interface의 링크가 제공된다.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양한 도움말과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Q를 한번씩 둘러보시면 라이코스에 대한 상세한 부 분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씩 읽어 보세요. (영어 사전 과 함께...)

### 7-4. 장점

1. Higher & Lower Confidence 구분 아이콘이 있어서 검색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용이.
2. 정보신뢰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제공된다.
3. 야후보다 빠르게 검색되며 Dead Link가 거의 없다.
4. 검색엔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인지 훨씬 빠르며 정보를 찾는 데도  
상당히 경제적 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야후만큼이나 방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후에  
없으면 여기에서 찾아 보세요. 야후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들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 이곳을 이용해 봄도 좋다 이 말씀!

## 검색엔진

### 8. 알타비스타(AltaVista)

#### 8-1. 특 징

1. 무려 2,100만개의 홈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진다.
2. 1만 3,000여개의 뉴스그룹(NewGroups)의 전문 인덱스(Index; 색인) 를  
갖는다. 게다가 이 인덱스가 실시간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 및 변경 된  
자료의 수정 등이 이루어진다.
3. 이런 문서의 제목과 간략한 소개의 글 정도를 인덱스(Index)로 갖지 않고  
문서 전체의 내용을 index로 갖는다.
4. 이런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음에도 엄청난 (기존의  
100배?) 속도로 검색을 수행한다.
5. UseNet 뉴스의 정보검색을 위해서 뉴스서버와 뉴스인덱스를 따라 두 고  
처리한다.
6. 기사의 검색도 단순한 키워드 이용방법 외에 날짜별 검색도 가능하다.
7. Advanced(확장) Query(질의) 기능이 있어 자세한 옵션의 지정.
  - And, Or, Not, Near 등의 연산자 이용.(웹크롤러와 사용방법은 동 일  
합니다.)
  - 자체적으로 키워드(검색어) 등장 빈도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출력  
순위를 정한다.
  - 자신이 준 키워드 간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서 순위 정하는 방  
법을 바꿀수도 있다.
8. 한글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키워드 검색을 알파벳 매칭(matching)으로 안 하고 코드매칭(Code  
matching)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KS5601 같은 한글 완성형 코드를  
인식한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한글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overflow"가 나옵니다. 또한  
결과물은 글씨가 깨져 있구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알타비스타가 다국어 지원을 과정에서 한글과 같은 코드(code)를 갖는  
다른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 일본어나 중국어의 코드와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 8-2. 알타비스타의 H/W 구조는

크게 64비트 알파 칩(Alpha Chip)으로 만들어진 5대의 컴퓨터로 이뤄 졌다  
이겁니다. 그럼 1대씩 살펴보죠

##### 1. Alta Vista

- 사양 : 알파스테이션 250 4/266, 4GB 디스크, 196MB 메모리
- 기능 : 알타비스타로 들어오는 수만개의 모든 http 요구를 받고 처

리하는 주 컴퓨터로서, 질의어(Query)를 분류해서 Web Indexer나 News Indexer에게 보내고 검색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 2. Scooter(스쿠터)

- 사양 : DEC 3000 Model 900, 30GB RAID 디스크, 2GB 메모리
- 기능 : 검색로봇프로그램 'Super Spider'가 동작하는 컴퓨터로서, 2,500,000여개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매일 검색해 결과를 Web Indexer에게 보낸다.

## 3. Web Indexer

- 사양 : 알파서버 8400 5/300, 210GB RAID 디스크, 4GB 메모리, 8개 Processors(병렬CPU를 사용한 컴퓨터)
- 기능 : Scooter로부터 받은 웹페이지들을 분류, 인덱싱(Indexing; 색인화)하는 디지털에서 만든 가장 큰 컴퓨터로서 몇 초만에 30GB의 웹페이지를 분류/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 4. NewsServer

- 사양 : 알파 스테이션 400 4/233, 24GB RAID 디스크, 160MB 메모리
- 기능 : News Indexer를 위해 13,000여개의 유즈넷(UseNet) 뉴스 스푼(spool)을 유지한다.

## 5. News Indexer

- 사양 : 알파 스테이션 250 4/266, 13GB 디스크, 196MB 메모리
- 기능 : 유즈넷 뉴스 스푼(spool)에 대한 최신 인덱스를 유지한다.

## 8-3. 알타비스타의 S/W 구조는

소프트웨어는 멀티쓰레딩(Multi-threading)과 알파 칩에서의 64비트 어드레싱(addressing)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유닉스 상에서 C언어로 만 들어졌다. Indexer는 병렬로 질의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Scooter는 하루 전세계 250만개의 웹 페이지를 검색해서 정보를 가져 온다.

### 1. Index Software

하루에 1GB 텍스트(문서)를 분석, 30GB 웹 인덱스를 유지한다. 이것은 병렬로 질의(query)를 처리한다.

### 2. Scooter Software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Standard)를 따라서 트래픽발생의 염려를 줄였고 어쨌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이다. 하루에 250만개의 웹 페이지를 검색해 준다.

## 8-4. 검색 알고리즘, 즉 검색 원리는

알타비스타는 모든 정보를 단어(words)와 구(phrase)라는 개념으로 보고 처리한다.

### 1. 단어(Words)

알타비스타는 모든 정보의 스트림(stream; 전송된 자료의 흐름)을 단어들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단 여기에서 단어의 의미는 특수문자(%,&/, \$, ^, ~ 등)나 화이트 스페이스(space, tab, EOL(end of line), EOF(end of file) 등)로 분리돼 있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만의 연속을 뜻한다. 알타비스타에서는 오직 단어만이 의미가 있다 이말씀!

- 예) 1개의 단어 : GG300, LimGyooGun, 536684t393, http, 정원, 028938432 등

- 예) 2개의 단어들 : I'm, chollian.dacom, x+y, Moon-SeungJu, 3.141592 등.

### 2. 구(Phrases)

단어들의 연속을 구라고 생각한다. 구는 단지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뤄지며, 사람들이 쓰는 문법에 맞지 않아도 된다. 아래 예는 구를 나타낸다. 알타비스타에서는 특수문자나 화이트 스페이스는 단어가 아니므로 의미가 전혀 없다. 즉 예1)과 예2)는 똑같은 의미.

- 예1) President of the U.S.A (6개의 단어들)

http://www.dacom.co.kr/ (5개의 단어들)

- 예2) President of the U S A (6개의 단어들)

http www dacom co kr (5개의 단어들)

동일한 질의에 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예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Advanced Query(확장 옵션)등을 이용할때는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어들은 스페이스(공백)로 띄우고 이중따옴표 (")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예) President of the U.S.A

President-of-the-U-S-A

President/of/the/U/S/A

### 3.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쓰면 상황에 따라 알타비스타 스스로 적절히 검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king'라고 질의를 주면 king, King, kIng, KiNG, kiNG 등이 검색된다는 의미. 주의할 사실은, 단어중 어느 한 글자라도 대문자가 포함되면 정확히 그것만 검색한다는 사실. 즉, 'King'라고 질의를 했다면 King만을 검색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해서 검색하기 바란다 이거죠

### 4. 메타문자의 사용에 대하여...

어떤 문자열을 포함한 단어를 검색하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도스의 dir에서처럼 '\*'를 사용한다. 알타비스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붙어 있다. 그 제약이란,

- 단어의 끝에만 쓸 것.
- 최소한 3글자 이후에 쓸 것.
- 소문자로된 5글자 까지만 찾아짐.

예를 들면, 'te\*'는 검색되진 않지만 'tel\*'은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tel\*'를 검색했을때 결과로 나올수 있는 것은 'teleport'나 'teller'이지 'tELLER'이나 'telephone'등의 tel이후 대문자가 포함된 단어나 tel이후 소문자 5글자 이상인 경우는 검색대상에서 제외된다. 글쎄 왜 이런 제약을 두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 8-5. 알타비스타 사용방법

### 1. Simple Query (기본 옵션)

간단한 검색을 위한 것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나 구를 submit 자리에 입력하면 됩니다. 알타 비스타에서 지원하는 몇 개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 +, -, 그리고 몇개의 특수 키워드이죠.

- 'love\*'는 love, lover, lovely 등의 문자를 포함하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 '+love'는 love라는 단어를 꼭 포함한 것으로 검색요망.
- '-love'는 love라는 단어가 확실히 없는 것만을 대상으로 검색.
- 그외에 특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

- internet 'korea telecom'  
internet이나 'korea telecom'의 구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검색
- http://gear.kotel.co.kr/  
'http gear kotel co kr'과 같은 의미로 검색됨
- seoul research +computer -hardware  
seoul이나 research를 포함하고 computer라는 단어는 꼭 있으며 hardware라는 단어가 없는 웹페이지를 검색.
- title:telecom title:'phone service'  
title중에 telecom이나 title중에 'phone sevice'가 포함된 웹페이지 검색
- +smith +quit\*  
smith를 꼭 포함하며 quit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검색  
'american indian' 'native american' +sioux -university -college native american이면서 american indian이며 sioux를 포함하고 university나 college를 포함하지 않은 웹페이지를 검색

## 2. Advanced Query (확장 옵션)

좀더 차원 높은 검색을 위해 단어나 구를 여러 개 쓸때 반드시 대소 문자 구분없이 AND(&), OR(), NOT(!), NEAR(-)등의 연산자를 쓰도록 한다.

예 :

- fish AND 'golden coast'  
fish와 'golden coast'를 동시에 포함하는 웹페이지
- telecom OR communication  
telecom 또는 communication 둘 중에 하나 이상을 포함한 웹 페이지
- Louis NEAR Monier  
Louis와 Monier가 함께 있는 것 중 'Lous Monier', 'Louis M.Monier', 'Louis, Monier M.'등 두 단어 중간 또는 옆에 10자를 넘 지 않는 단어를 포함한 웹페이지 검색.
- zoo AND (tiger OR lion)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
- negate AND 'or' AND algebra  
키워드인 AND, OR 등의 문자를 검색하려면 따옴표를 꼭 해야 한다.

## 3. Surprise : 각종 분야별로 웹페이지를 분류해 놓은 directory.

알타비스타는 몇몇의 특수 키워드를 지원하는데 웹 페이지의 title이 나 Usenet newgroup의 내용등에서 보다 상세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title:처럼 끝에 ':'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중 title내에 dacom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찾고 싶다면 title:dacom 이라 입력하면 된다.

[ 웹 페이지 검색용 특수 키워드 ]

- title:  
웹

# 검색 엔진

## 9. 메타 엔진(Meta Engines)

영문 URL -- <http://www.cs.colostate.edu/~drelling/smartform.html>

한글 URL -- <http://gualdi.cs.colostate.edu:2000/form?lang=korea>

메타검색엔진의 전형적인 형태인 Meta Engine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얼마전 열린 정보검색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 검색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란 말때문이라 하더군요. 아무튼 이 검색엔진은 각 검색엔진들에게 병렬적으로 질의(검색어)를 보내어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이용자에게 보고해 준다 이겁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검색엔진인 것이죠. 이 메타 엔진이외에도 몇몇 메타검색엔진들이 있습니다. All in one-search page나 기타 다른 엔진들 (단, 'savvy search'와 'Meta Crawler'를 제외한)은 여러 개의 검색엔진에 보내는 검색어를 한 페이지에 그냥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메타검색엔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 9-1. 에이전트(Agent)

기존의 검색엔진에서 사용하는 로봇(Robot)과 비슷한 것으로, 이 에이전트가 여러 개의 다른 검색엔진에 병렬적(동시에 여러곳에)으로 질의(query)를 보내고 자기 자신이 그 답을 정리한 다음 한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메타엔진의 성능은 "에이전트(Agent)"가 어떠한 검색엔진들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 9-2. 특징

1. 유일하게 다국어를 지원한다.  
한글도 지원되므로 메뉴도 한글로 나온다. 위의 두번째 URL로 접속하면 한글메뉴를 볼 수 있고 한글검색을 할 수 있다.
2. 옵션(option) -- '간결', '보통', '자세한 출력' 등으로 선택.
3. 결과를 통합하여 우선 순위별로 보고가 가능하다.
4. 자체 데이터베이스(자료 저장소)가 없으므로 자료 갱신 주기는 다른 엔진에 영향을 받는다.

## 사이버스페이스안의 여성들의 왕국

■ **우먼스 와이어드(women's wired)** <http://www.women.com> '우먼스 와이어' 역시 대표적인 여성 사이트. 엘렌 펙과 낸시리네 두 미국 여성이 만든 것이다. 총 7가지로 구성된 메뉴는 항목별로 다시 3~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사들의 내용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갱신되는데 주로 사회 문제, 패션, 연예계 소식 등을 다루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과 앙케트 조사 자료, 각종 패션 정보들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독자의 패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패션 상식과 궁금증도 해소해 준다. 모든 질문은 전자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적합한 일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데 아이를 가진 여성, 보수가 많이 필요한 여성 등 경우에 따라 세분화된 메뉴가 눈길을 끈다. 여성의 건강과 관련해 상식적인 내용들과 질의응답 코너도 이 사이트의 인기 메뉴.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신체 질환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물론 남녀 관계 등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즉시원한 답변 소개를 화면에서 확인하면 국내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예계, 영화계 정보도 제공하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정보, 별자리를 통해 보는 운세 등은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우먼스 와이어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세계 유수 기업의 광고를 실는 것이 특징. 한 달에 10만 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릴 정도로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사이트다.

■ **웹걸스(webgrls!)** <http://www.webgrls.com> 'webgrl'이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가진 여성', 혹은 '인터넷의 여성 일원'을 뜻하는 신조어. 이 사이트에서는 'webgrl 엑스포 96'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 뉴욕정보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새로운 미디어인 웹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포럼과 함께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뉴미디어 비즈니스와 계획, 그리고 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이 함께 전시된다.

■ **여성지도자 온라인** <http://wlo.org> 인터넷 상의 여성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진보여성운동 사이트. 여성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극우주의자들의 반여성적인 의제설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E메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1백만 명의 여성을 링크 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올 말에 벌어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여성 권익 보호자를 지지하자는 대규모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 **여성 온라인(women online)** <http://www.women-online.com> 지난 9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소식을 알리는 온라인에서 출발한 이 서비스는 웹으로 발전하면서 지구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매달 제공하고 있다. 이곳과 연관된 곳으로 'wwwomen: 컴퓨터시대의 여성'(<http://www.wwwomen.com>)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약을 잘 정리해 야후와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티브 토론방도 있다.

■ **여성학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feminist resources on the internet)** <http://www.mit.edu/ople/sorokin/women/lhunt-wir/wir.homepage.html> WWW이나 뉴스그룹 외에도 고퍼나 FTP, 텔넷, 메일링리스트 등 인터넷을 이루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법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 연구와 페미니즘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가 어디에 묻혀있는가를 알려주는 문건. 미시건 대학 도서관학과의 로라 힌트(lahun@umich.edu)가 만든 것으로, 작성자의 이름만 밝히면 누구나 이 문서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계할 수 있다.

■ **영화 속의 여성** <http://poe.acc.virginia.edu/~pm9k/libsci/womFilm.html#intro> 페미니즘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이트. 페미니즘 영화는 물론 여성학에서도 매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장르다. 이 사이트에서는 페미니즘 영화와 관련한 문건을 소개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하이퍼링크시켰다. 이 사이트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페미니즘 영화작품을 분석해 그 제공하는 '여성학 관련 영화 리뷰'(<http://www.inform.umd.edu:8080/EdRes/Topic/WomensStudies/FilmReviews>)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여성운동가들이 활용할 온라인 자원(feminist activist resources on the net)** <http://www.igc.apc.org/womensnet> 평화망(PeaceNet), 환경망(EcoNet), 노동망(LaborNet) 등과 함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연구소(IGC)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망(WomensNet)은 여성의 권리 증가를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성활동가들의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곳도 여기다. 최근에는 지구촌 여성의 전자 지원 네트워크라 불리는 '가상 자매결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 **인터넷 여성 평의회(Women's Internet Council)** <http://www.rain.org/wic.html> 인터넷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여성상의 정립을 표방하고 있는 사이트. "인터넷이 명실상부한 지구촌 건설에 동원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성이나 단 하나의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집단이 지배해서는 안된다"며 가족, 교육, 예술, 비즈니스 등을 바라보는 기존의 편협한 시각을 세계 문화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당수 여성관련 사이트가 링크돼 있다.

■ **TAP(아다 프로젝트)** <http://www.cs.yale.edu/HTML/YALE/CS/HyPlans/tap/tap.html> 포인트커뮤니케이션과 마젤란이 우수 웹사이트로 선정한 바 있는 이 사이트는 지난 94년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수록된 정보센터를 건설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여성과 관련된 회의, 계획, 조직 등을 소개하는 한편, 컴퓨터 과학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여성의 소개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에니악 탄생 50주년을 맞아 최초의 컴퓨터 탄생에 이바지한 여성 프로그래머들을 조망하고 있다. 이 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곳으로는 '여성학 컴퓨터 과학'(<http://www.ai.mit.edu/ople/ellens/gender.html>), '웹스터 네트워크 : 정보기술 속의 여성'

(<http://lucien.berkeley.edu/women>) 등을 꼽을 만하다. 특히 웹스터 네트워크는 여성과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하는 상당수의 웹 사이트를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 **국제 여성 웹 디자이너 명부**<http://www.primenet.com/~shauna/women.html> 여성이 소유하고 있거나 여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웹 명부를 볼 수 있는 곳.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미국, 서유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웹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이들 사이트들 역시 여성 관련 주제를 다루는 곳이 대부분. 제목은 웹 디자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일 외에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의 유지 보수와 교육, 컨설팅 등도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

■ **정치학 속의 여성(Women in politics)**<http://www.glue.umd.edu/~cliswp/> 미국의 제반 정치현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근거를 제공하는 사이트. 대통령 영부인이나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정치가로서의 여성', '역사', '여성 후보 선출하기' 등 3개 파트로 구성된 이 사이트는 짙막한 규모에 비해 비중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미국 역사를 이루는 굵직한 사건마다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갔는지를 알려준다. 여권운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

■ **위민즈넷**(<http://www.womenz.net.머>) 여성문제를 대표하는 사이트다. 스파이더 레드콜드라는 중년의 여성 운동가가 93년에 개설한 이 사이트는 개설되자마자 마땅히 쉬어 갈 곳이 없었던 소수의 여성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다. 여성들에게는 척박하기만 했던 인터넷에 떠오른 최초의 여성 관련 사이트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주된 자료는 여성의 권리 옹호를 위한 내용. '페미니스트 머저리티 (feminist majority) 사이트 (<http://www.feminist.org/>)', '위민즈넷(<http://www.igc.org/womensnet/>)' 등과 함께 여성 운동가들이 꼭 접속해 봐야 하는 곳으로 통한다. 여성 문제와 관련된 전세계 매체의 기사 검색이 가능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와 각종 여성 단체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각기 토론 게시판과 마련하여 세계 여성들이 입의의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각 사이트마다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페미니스트 머저리티에서는 3월초부터 '일하는 여성을 위한 SF 영화'를 선정해 소개하는 중이다. 이들 사이트의 역할은 세계 여성들의 정보 마인드를 확산하는 일. 인터넷 초보자를 위한 강좌와 사이버 단체에서 활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경험담도 공개한다. 위민즈넷은 80여 각종 단체와 연계해 여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90개국의 여성들에게 예용되는 수준. 여성문제, 여성학관련 세미나 소개, 건강 정보, 가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실도 운영한다. 국내에도 여성전용 사이트인 '페미넷(<http://www.feminet.or.kr/>)'이 개설되어 있으나 아직 이들 사이트에 비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다.

■ **전세계의 향수를 총망라하는 웹 사이트 퍼퓸** (<http://www.98perfume.com>)

요즘은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향수를 한두 개쯤 갖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큰 관심사다. 이곳은 비버리, 폴로, 샤넬, 구치 등 유명 브랜드의 향수를 취향대로 고르는 법을 소개하는 곳. 뿐만 아니라 원하는 향수는 직접 주문할 수도 있다. 향수의 향뿐 아니라 용기에 대한 미적인 안목이 남다른 네티즌을 위해 각종 사진도 제공된다. 총 9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달의 추천 향수, 여성을 위한 향수, 남성을 위한 향수, 향수 선물하는 요령 등 일상에서 필요한 향수 관련 정보를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 **최신 패션 디자인과 미용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 메인 플로어** (<http://www.mainfloor.com>)

여성 패션과 각종 디자인 정보, 기초 미용법, 향수 정보 등이 가득한 곳. 문서만 준비한 일반 사이트에 비해 필요한 이미지들이 가득해서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일목요연한 짜임새로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메인 플로어의 특징. 향수, 보석과 관련된 정보도 그렇지만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화장품 전문 사이트 못지 않다. 추천할 만한 메뉴는 'Good Advice'.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등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번쯤 거처야 할 심각한 문제는 물론 관심사인 미용에 대한 문제까지 적절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영어 해독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관련 서적을 읽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주는 하얀 치아를 갖는 방법, 고운 손으로 가꾸기 위한 손톱 손질법에 대한 정보 등도 쉽게 검색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패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카탈로그, 패션계 뉴스, 올 여름의 패션 동향 등을 통해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을 해당 디자인의 의상 사진과 함께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Makeovers' 메뉴에 들어가면 나이별, 직업별, 인종별 화장법을 샘플 사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대학생, 40대, 히스패닉계, 아시안계를 위한 화장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단순한 화장술에 대한 기초 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굳이 화장품 회사의 메이크업 테크닉 소개를 보지 않아도 자신의 개성에 맞는 메이크업을 구사할 수 있다. 이 메뉴는 어떤 면에서는 화장 전문 사이트로 유명한 '코스메틱(<http://www.cosmetics.com/>)'보다 유용하다. 코스메틱 사이트는 피부관리 프로그램과 메이크업에 관한 가이드가 확실한 곳. 피부 및 머리색, 현재의 화장법에 관한 설문 항목이 있는데 답을 작성하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그 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다. 각종 메이크업 가이드도 전자메일을 통해 해주는데 비용은 무료다.

■ **살아 있는 인테리어 정보를 얻는다 - 더홈** (<http://www.thehome.com>)

집 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여성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구, 조명 등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가 가득한 이곳은 각종 가구 구입 방법과 손질법, 배치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가득한 곳.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거나,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전문 서적을 사보기 전에 이곳에 둘러 보도록 하자. 기초적인 인테리어 지식은 물론 마룻바닥, 조명기구, 가구, 욕실, 거실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각 인테리어 도구 사용시 유의점, 청소 방법, 관리하는 법, 수리 방법 등도 소개되어 있다.

■ **자연 화장수 제조법, 패션 동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곳 - 패션 인터넷** (<http://www.finy.com>)

최근 패션 동향, 자연 식품을 활용한 피부 관리, 간단한 제조로 몸매 가꾸기... 여성지에 흔히 특별 기획으로 등장하는 이런 정보가 '패션인터넷'에는 항상 가득하다. 계절에 따른 패션 경향, 피부 관리, 몸매 가꾸기, 화장법 등이 가득한 이곳이 다른 여성 정보 사이트보다 인기 있는 이유는 과정 하나하나, 동작하나 하나가 모두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점 때문이다. 이곳에 들어 있는 준비한 정보 중 가장 쓸

만한 것은 바로 천연화장품 만드는 법. 마늘, 레몬, 당근, 우유 등을 이용한 화장품이 이 곳에 준비하다. 스트레스와 공해,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피부에 문제가 자주 생기는 사람에게 적합한 화장품 제조법 등 증세마다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과 관련한 미용 정보도 눈길을 끈다. 한국식 마늘 팩은 땀 구멍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드름에 만병 통치약이라는 것. 영문 자료라 자칫 잘못 번역해 이해하면 피부 손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에서 각 PC 통신 서비스의 여성마당을 통해 교환되고 있는 자연 화장품 만드는 법과 비교해 응용하면 저렴한 고기능의 자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다.

#### ■ 요리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 인터넷 셰프 (<http://www.ichef.com>)

혼자 사는 여성이든, 결혼한 여성이든, 직장 여성이든, 전업 주부는 요리는 뭘 해야 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다. '인터넷 셰프'는 식사, 간식, 캔디 등 각종 요리의 조리법을 간편한 메뉴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 요리와 관련된 기사 검색, 이 주의 요리, 각종 요리 조리법 검색 메뉴 등을 갖추고 있어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한번 둘러 보길 권한다. 각종 조리 기구에 대한 사용법과 이에 따른 팁도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올린 내용들도 많아 세계 각국의 고유 음식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다. 수 백개의 요리에 대한 조리법을 요리 제목이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요리하다 발생하는 실수들의 복구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 케이크가 너무 딱딱하게 구워졌거나 바다가제가 잘못 손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요리를 하다 흔히 겪게 되는 실수에 현명히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 ■ 세계 여성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 여성사(<http://frank.mtsu.edu/~kmiddlet/history/women.html>)

여자로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온갖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를 쓰자면 백과사전 만한 두께로 몇 권이 나온다는 말은 동양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성 운동은 물론 여성사, 여성학에 대한 연구활동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것을 보면 여성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지구상의 공통 과제임이 틀림없다. 여성학의 기본은 과거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는 것. 과거 여성들의 삶과 그중 남다른 삶을 살아온, 흔히 '위인'이라 불리는 여성들의 자료가 인터넷에 적지 않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다.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개설한 여성사 사이트는 여성사에 대한 각종 자료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여성이면서도 여성에 대해, 특히 역사를 빛낸 여성들에 대해 잘 모른다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릴적 위인 전기에서 읽은 나이팅게일이나 헬렌, 황진이나 신사임당 등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물론 최근 들어 각종 매체를 장식하는 여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역사학적인 시점이 아닌 여성학적인 시점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성사 자료를 대거 보유한 이곳의 메뉴는 서지학, 관련 서적 링크, 여성사 백과사전, 인명사전, 테네시 주립대학 도서관 보유 마이크로텍스트 컬렉션, 인터넷 상의 멀티미디어 전시관, 관련 논문 검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가볼 만한 곳이다. 화 시켜 나가야 한다.

#### ♣ 여성관련 사이트를 추천해 주세요 여기로~

##### ▶ 여성신문 [www.kidb.co.kr/women/970627/w1.htm](http://www.kidb.co.kr/women/970627/w1.htm)

여성신문 기사정보, 여성신문 출판물 소개, 유망직종, 구인정보, 신간소개, 한쪽이 의 가족일기(만화), 독자 토론마당

##### ▶ 아태여성정보통신망(APWIN) [apwinc.sookmyung.ac.kr](http://apwinc.sookmyung.ac.kr)

학술자료, FemMed/WomMed: 미디어칼럼, 여성디지털 갤러리, WomEdu: 교육프로그램(TESOL, 음악치료, 건강교육)

##### ▶ 여성복지이야기마당(뉴스그룹) [news://news.welfare.net/women.bbs](http://news.welfare.net/women.bbs)

이 사회에서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학 이론이나 학술세미나 등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WOMEN21) [www.women21.or.kr](http://www.women21.or.kr)

노동,성,복지,환경,통일,교육 등 부분별정보, 진보적여성단체정보,여성문제토론실 등

##### ▶ 한국여성정보원 [www.feminet.or.kr](http://www.feminet.or.kr)

여성정치, 정책,북한여성,지방자치 등

##### ▶ 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가족과 성 상담소,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평등 추진본부 운영, 바른 먹거리 정보, 육아정보, 성상담 사례, 여성 건강 정보, 자녀/주부 교육 프로그램, 자료실, 매거진 '함께 가는 여성', '평등'의 목차.... Tel.02-269-5763

#####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일하는여성들의 네트워크) [www.kwwnet.org](http://www.kwwnet.org)

여성노동뉴스, 국제연대, 지역여성노동자회소식, 평등의 전화 상담자료 등

##### ▶ 한국기독교여성네트워크 [maria.peacenet.or.kr](http://maria.peacenet.or.kr)

##### ▶ 인권운동사랑방 [interpia.net/~rights/](http://interpia.net/~rights/)

인권운동사랑방은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 삶을 파괴하는 개발에 반대하며, 인권을 그 피해자(약자)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1993.3에 설립되었으며, 인권운동가,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인권소식지를 발행합니다. Tel 02-715-9185, Fax 02-715-9186

▶ 집에서 일하기 [www.isnet.co.kr/bride/97/5/164000.htm](http://www.isnet.co.kr/bride/97/5/164000.htm)

일·가사·육아를 한꺼번에 거뜬히 해결하는 재택근무 올가이드

▶ 한미여성병원 [www.pregnant.com/](http://www.pregnant.com/)

피임과 가족계획, 사춘기와 청소년, 성병과 안전한 성생활, 자궁암, 유방암 조기진단, 생리와 생리불순, 부인병, 임신, 출산, 갱년기, 폐경기, 골다공증, 남녀 생기의 구조와 기능, 성기장애와 고민, 성교 시작부터 끝까지... 기타

▶ 한컴네트 여성마당 [www.hnc.net/channel/woman/main.html](http://www.hnc.net/channel/woman/main.html)

육아, 여성건강, 다이어트, 요리, 미용, 여성관련기관, 재테크, 재택근무 정보

여성의전화, 일본군 위안부 홈페이지, 허남순 교수의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